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3월 9일)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코로나19 장기화… 사찰 재정 '빨간불'

법회 중단 · 참배객 감소로 재정난 심각 수준

성보문화재 관리 어려워
교역직 스님 보시금 삭감
불교대학도 입학생 모집난

문체부 종무실장 예방서
원행 스님 "정부 지원을"
분담금 조정 필요성 높아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사찰들의 재정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선 사찰들은 주지, 교역직 스님들의 월보시금을 삭감하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만 재정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라 조계종은 세 차례에 걸쳐 지침을 내리고 법회 중단과 행사 및 모임 취소 · 연기 등을 일선 사찰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의 사시예불과 법회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도 접수 역시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회 중단으로 인한 기도비 감소와 참배객들이 오지 않는 상황으로 사찰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찰의 경우 고정 지출 비용이 커 재정난이 심각하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절반으로 줄었다. 조계사 측은 "고정적인 월 지출로 인한 부담이 있다. 현재 1~3단계로 절감책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3월부터 소모품 절약과, 종무원 업무추진비를 전면 삭감하고 아르바이트 등 외부 인력 활용을 중단했다. 조계사는 장기화 시 종무원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에 위치한 서울 봉은사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행사 중단과 기도객 감소 등으로 1분기 사찰 수입은 예년에 비해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은 "주지스님께서 먼저 3개월간 급여를 반납하셨고 사중 스님들도 직책수당을 반납하고 기본급을 삭감하셨다. 또 종무원들과 합창단, 계층별 조직도 각종 보시금을 반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주요 교구본사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조계총림 송광사 재무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로 1개월간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55% 감소했다. 게다가 송광사에서 매년 봄 진행해온 3월 불사가 취소된 것은 최근 40여 년 역사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화엄사 관계자는 "산문폐쇄는 하지 않았지만 법회나 각종 순례가 이뤄지지 않아 관람료는 20%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이보다도 일반사회의 피해가 더 커 걱정"이라며 "쉽진 않겠지만 향후 헌혈과 코로나19 기금 등을 만들어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초하루법회 기준으로 평소 10% 수준으로 기도비가 접수됐고, 입장료 수입도 현격히 줄었다. 대외 지출과 공양비를 최대한 아끼고, 교역직 스님들의 보시금을 삭감했다.

통도사 교무국장 인경 스님은 "힘든 상황이지만 최대한 아껴쓰는 방향으로 사중 대중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면서 "그래도 통도사 소유 상가들에게는 임대료 50%를 감면해 도움을 주고 있다.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정총림 범어사 역시 평소 10~20% 정도만 운영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사 교무국장 범종 스님은 "문화재관람료를 원래는 받지 않고, 주차료만 받는데 이마저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사중 대중이 더 아끼고 절약하며 위기를 넘기려 한다"고 전했다.

'불도(佛都)'라고 불리는 부산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부산 사하구 약수사 주지 혜우 스님은 "중요 법회를 취소해 신도들은 모이지 않는다. 평일에는 간간히 기도하기 위해 법당을 찾는 참배객들이 있지만 하루 5명도 안된다"면서 "세속에는 더 힘든 사람도 많다. 어렵다는 말보다는 나눌 수 있는 것은 더 나누려고 한다"고 밝혔다.

불교대학들도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모든 것이 멈췄다. 개강도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강생들의 졸업식도 열지 못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서면 중심에 있어서 아예 문을 닫았다"면서 "문을 닫고 혼자서 예불하며 방역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사찰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찰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종단의 재정 상황도 빨간불이 커졌다. 이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월보시금을 삭감해 종단운영비로 회향했다. 행사와 사업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불교계 전반의 재정난이 심각 수준에 이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원행 스님은 3월 25일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은 줄어들고, 문화재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등은 지출되면서 많은 사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사찰은 더 힘든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사찰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찰 재정난 해소를 위한 분담금 감면 등 종단적 대책도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총무국장 지상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분담금 감면을 추진할 의지는 있지만 아직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과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사찰들의 어려운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지나서 상황을 보고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CRP 대표회장 원행 스님 취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이하 KCRP) 제13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KCRP는 2월 25일 공동회장단 회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를 연기하고, 각 종단 행사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기된 총회를 다시 연기하기 어려워 대다수 대의원 위임을 받아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총회를 개최했다. 취임식을 겸한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김희중 전임 대표회장과 KCRP중앙위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13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원행 스님은 "이웃종교와 함께 우리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종교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종교간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정과 화합,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취임인사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스님들 '자비 헌혈'로 사회적 기여 나서다

조계사,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운동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자 급감으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조계사 스님과 신도 대중이 '자비의 헌혈'을 통한 사회 기여에 나섰다.

서울 조계사는 3월 24일 조계사 경내에서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소멸 발원, 자비의 헌혈 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비의 헌혈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원,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해 나눔을 실천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줄어들어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비의 헌혈 운동 행사를 마련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하루 빨리 소멸되기를 바라며 각자가 자기관리를 잘 하시길 바란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 급감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조계사는 3월 24일 경내에서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소멸 발원, 자비의 헌혈 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동식 헌혈버스 안에서 조계사 행정국장 홍재 스님이 헌혈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고시위원회 1급 승가고시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결정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급 승가고시를 잠정 연기한다"고 3월 23일 밝혔다.

1급 승가고시는 종단 지도자가 되기 위한 관문 중 하나다.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비구) · 혜덕(비구니) 법계를 수지한 법납 25년 이상의 스님으로 결계신고를 필하고 매년 30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5년간 이수해야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종덕(비구) · 현덕(비구니) 법계가 주어지며, 교구본사 주지 · 계단위원 · 법규위원장 · 호계위원 · 법규위원 등 종단 주요 지도자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 조계종 1급 승가고시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급 승가고시는 여타 고시와는 달리 필답 고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갈마위원 5명이 그간의 수행이력과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과 앞으로 계획을 묻는 면접 고사로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조계종, 총선 앞둔 후보들에 정책 제안

문화재관람료 등 현안 해결방안 담아 3000부 배포

전통문화 발전 · 사회통합 주제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 비롯
전통사찰 중복규제 완화 제안
차별금지법 필요성 재차 강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조계종이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불교 현안에 대한 정책자료집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3000부를 배포했다. 자료집은 '전통문화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2개의 대주제로 구성됐다.

조계종이 자료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이다. 문화재 보유 사찰의 관람료 징수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져 온 과제다. 특히 지난해 6월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헌법소원을 언급할 정도로 강력하게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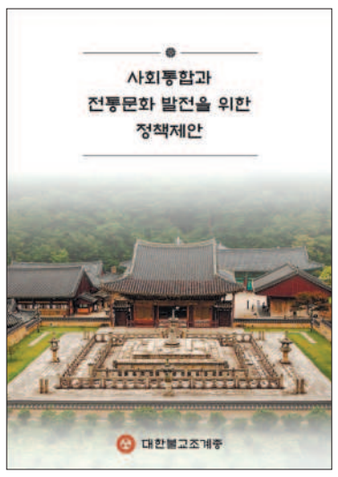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번 자료집에서도 "2007년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을 야기한 정부 관계 부처의 문제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지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국립공원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한 가칭 '국가공원청' 승격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가치,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보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보상 절차 명문화가 어려울 경우 사찰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조계종은 국립공원 면적 총 3972㎢ 중 7%에 달하는 279㎢를 소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계종 소유 토지가 국립공원 내 핵심지인 데다 월정사의 경우 오대산국립공원 경제적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계종은 보고 있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에 이어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국가 문화재 정책이 국유 문화재를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되고, 민간문화재는 지원보다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관점으로 관리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유산은 47.7%를 차지한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해 불교문화재 전담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문화재 소유별 균형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현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궁궐, 왕릉, 유적 등의 관리에 인력과 예산이 편중된 것에 대한 형평성을 요구한 것이다.



조계종이 여야 각 정당에 배포한 불교현안 정책자료집.

이와 함께 조계종은 "문화 · 역사 · 불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 법령의 중복된 규제로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가 제한된다"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형 전통사찰들이 재정 부족으로 겪는 시설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50%를 명문화할 것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보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조계종은 사회통합 부문에서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차별금지법은 불교계가 수년 전부터 이웃종교계와 연대하며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보수개신교의 반대로 인해 법안 제정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조계종은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12일 차별금지법이 상정됐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속적으로 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찰 주변 산림 가꾸기, 북한 문화재 공동조사 및 발굴 복원 등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남북불교 교류로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계종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여야 각 정당과 전국 교구본말사에 배포한 데 이어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맞춰 전국 253개 지역구 모든 여야 후보 캠프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동국대 '착한 임대운동' 동참한다

창업원, 108개 입주기업 30% 임대료 감면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다.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와 고양캠퍼스(BMC)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108개 기업이 4월부터 3개월 간 3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3월 기준 서울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는 19개 스타트업이, 고양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89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동국대가 참여하는 '착한 임대운동'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일정기간 내 임대료 인하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운동이다.

김대영 동국대 창업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이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착한 건물주 운동뿐만 아니라 창업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다각적인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IT · 문화콘텐츠(서울), BIO · MEDICAL(고양) 특화분야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선도할 스타트업을 발굴 · 지원하고 지역연계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신흥사 지혜 · 백양사 무공 스님 주지 임명


지혜 스님


무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후보 지혜 스님과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후보 무공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1975년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 불교복지학과에 이어 동국대 교육대학원 교육철학과를 졸업했다. 삼화사와 능인사, 명주사 주지를 역임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백양사서 암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승가대학과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백양사 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코로나19 극복 '보시행' 성금 답지

해인총림 해인사 비롯해
말사 · 문도회 등 기부 동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불교계의 자비행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 단위 사찰과 문도회, 각 기관단체가 나서 성금을 곳곳에 기탁하고 있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현응)는 3월 23일 대구시청을 방문, 코로나19 극복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해인사는 25일 경북도청과 경남도청에 각 1000만원, 합천 지역민을 위한 마스크 5000장도 기탁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모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영화사(주지 평중)도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성금 2000만원을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영화사 총무 화평 스님은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현장 소식을 접한 월주큰스님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한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영화사도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단 취지에 맞춰 작은 정성을 보탠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서울 영화사가 3월 25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2000만원.

비구니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청해문도회(문장 성련)는 같은 날 1000만원의 성금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문장 성련 스님(대전 관음사)과 재무 대안 스님(산청 금수암)이 참석했다.

성련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다. 종단뿐만 아니라 사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종단이 역할을 잘 해주셔서 위안이 된다"면서 "종단이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문도스님들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도 앞서 라디오와 TV 특별생방송을 통해 모연한 성금을 이날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선재 불교방송 사장과 박경수 보도국장, 문태준 라디오제작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총 1억2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선재 사장은 "라디오와 TV 방송을 접한 불자들의 모금 행렬을 보고 한국불교의 희망을 봤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 불자들은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함께하고자 성금을 전달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이 아니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보시행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호섭 · 하성미 기자

"비정규직 PD의 자살, 진상규명하라"

조계종 사노위, 이재학PD 49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3월 23일 CJB청주방송국 사옥 앞에서 故이재학 PD의 49재를 봉행했다.〈사진〉 이 PD는 2004년부터 14년간 청주방송에서 근무하며 동료 프리랜서 피디를 대신해 인건비 인상과 인력 충원,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 처우 개선에 나서다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위원장 혜찬 스님은 "방송현장에서 제2의 이재학이 나오지 않게 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에 따르면 이 PD는 아이템 선정, 섭외, 구성, 촬영, 편집 등 정규직 PD와 같은 업무로 14년을 근속했지만 월급은 16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사측에 노동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를 당하고, 프리랜서 고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다 조직적인 진실은폐를 견디지 못한 채 목숨을 끊었다.



이에 사회노동위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며 "고인의 49재를 맞아 고인의 명예회복과 극락왕생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비누(BLOOD MAT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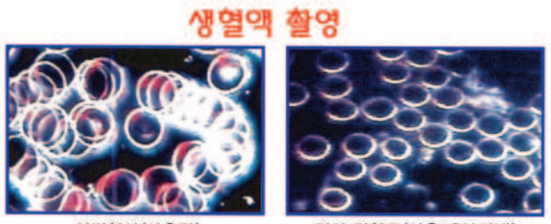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

1. 폐렴균에 의한 질환 개선. 2.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를 예방. 3. 과식,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숙취해소 약을 먹는 것 보다 속이 빨리 편해지고, 술이 빨리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4.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치약을 아픈 부위에 발라 놓으면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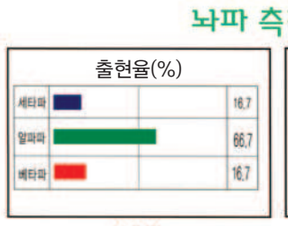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비누(BLOOD MATE®)를 단 한번 쓰고, 연전현상의 적혈구가 정상적 적혈구로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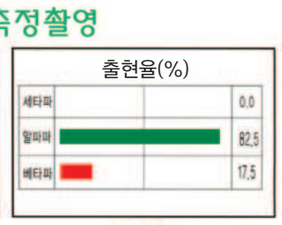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 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으며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 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올 봉축, ‘코로나 극복 서원등’ 달아요”

조계종 포교원, 서원의등 하나 더 달기 운동 전개

코로나극복 기도정진 일환
전국 사찰서 전화 등 접수
불교 사회적 실천 서원 의미
기도 목표 달성밴드 개설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서원의 등’을 하나 더 다는 운동이 전개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3월 25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불교적인 정진의 일환으로 불기2564년 봉축주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원의 등달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불자들은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재적사찰을 비롯한 인연있는 사찰에 연등 공양을 통해 마음을 밝혀왔다. 조계종 포교원이 진행하는 이번 서원의 등 하나 더 달기 운동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 봉축주간 회향까지 코로나19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와 함께 전화와 온라인으로 사찰에 연등을 다는 운동이다.

사찰에서는 기존 봉축등과 함께 ‘치유의 등’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생명의 등’ ‘나와 이웃을 위한 등’ ‘평화의 등’ 등 다양한 우리 사회를 위한 등을 마련해 서원의 힘을 모은다.


2019년 서울 조계사에서 봉축연등을 다는 종무원의 모습.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비단 코로나19로 인해서만 다는 것이 아니다. 불교는 기복 뿐만 아닌 사회적 실천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봉축행사가 연기된 만큼 그 기간동안 기도를 진행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많은 이들을 위하는 서원의 등을 함께 밝히자”고 당부했다.

이번 ‘서원의 등 하나 더 달기’ 운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과 함께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기도정진을 돕기 위해 네이버 목표달성밴드를 개설해 사찰별로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네이버 목표달성밴드는 사찰과 기관, 단체가 함께 모여 기도정진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알람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라이브 예불방송을 함께 시청한다. 라이브 방송이 종료 후에도 게시물로 등록해 부처님 법을 나누고 신도들과 소통할 수 있다.

목표달성밴드는 각각의 목표를 설정해 수행을 독려한다. 예를 들어 〈보배경〉 기도문 독송하기라면 인증기간 30일 동안 매일 기도문을 소리내 읽고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찍어 인증하는 것이다. 밴드 하단의 친구 초대하기 기능과 QR코드 등을 통해서도 인쇄물에 넣어 홍보할 수 있다.

한편, 포교원은 이번 기도정진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수칙인 손씻기 또한 수행으로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

방법은 모든 병고를 물리치는 진언인 관세음보살보발수진언 또는 손을 씻는 진언인 세수진언을 외우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코로나19 극복 기도정진과 서원등달기, 손씻기 수행으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새겨 나가겠다. 사부대중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자비행을 실천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청안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 국난 극복, 팔만사천결사로 결집

아름다운동행 8만4천결사 동참 이어져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의 범종단 모금캠페인 팔만사천결사에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팔만사천결사는 아름다운동행 설립 10주년을 맞은 지난 2018년 시작된 모금캠페인으로, 이 세상 모든 곳에 부처님의 자비 손길이 닿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현재까지 사찰, 스님 그리고 불자들의 관심 속에 동참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4구좌의 결사가 이뤄졌다.

아름다운동행은 2019년 팔만사천결사 첫 회향으로 독거어르신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동행수라’ 사업을 시행했으며, 2호 사업으로 밥차와 장비를 구입, 독거어르신, 노숙인, 아동 보육현장에 짜장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짜장공양’을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동행은 팔만사천결사 동참 확대에 따라 향후 아동센터, 요양원 등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과 같은 학교를 세계 곳곳에 짓는 교육불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800여년 전 불자들이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8만4천 법문을 나무에 새기며 마음을 모아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듯, 팔만사천결사를 통해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곳에 부처님의 자비 손길을 전할 수 있다”며 “한 달 7천원, 일년 8만4천원의 동참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8만4천 결사 동참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dreaminus.org) 또는 전화(02-737-9595)로 가능하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모금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대구 경북지역에 생수 20만병과 2억3천만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또 환자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국대 일산병원과 경주병원 의료진을 위한 기금 1억원을 지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유산 활용’, 헌장 반영한다

문화재청, 23년만에 ‘문화유산 헌장’ 개정 추진

1997년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이 23년만에 개정 추진된다. 문화 향유를 중시하는 삶에 맞춰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내용을 헌장에 담기 위함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이하 헌장)을 일반 국민, 학계, 학생, 문화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3년 만에 개정한다.

현재 헌장은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보존 환경이 악화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1997년 제정됐다.

문화재청은 “헌장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분위기 형성과 공동체 참여 가치의 중요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 활용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변화된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과 문화재청 정책고객, 문화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헌장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788명)의 70.5%인 556명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헌장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는 승려법 및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여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은 스님들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승려복지법에 의거하여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정기분한신고 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 받습니다.

– 다 음 –

●신고기간 : **불기2564(2020)년 2월 3일(음 1.10) ~ 4월 30일(음 4.8)**

●신고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

●신고서류

가.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인감날인)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인감증명서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8) 주민등록 초본(모든변동사항 포함)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9) 주민등록 등본(모든변동사항 포함)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10)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 1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4㎝) ····· 3매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나.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본인서명)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기간만료 전) ····· 1부
6)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7)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4㎝) ····· 3매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8)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9)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승적말소자·직권제적자 분한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2회 이상 분한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는 별도의 교구심사를 거쳐 총무원에 상신하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1) 분한신고미필사유서(소정양식) ····· 1부
2) 사찰거주확인서(소정양식) ····· 1부
3)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 도반등의 수행확인서(소정양식) ····· 1부
4) 승납재기산 동의각서(소정양식) ····· 1부
5) 제적등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동 전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함

●**서류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우편으로 접수바랍니다.

●분한신고 수수료
1) 2010년도 분한신고를 필한 승려 : **없음**
2)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직권제적자 : **10만원**
※수수료는 재적교구본사로 납부함

●주의사항
1) **신고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려법 제34조의 7(분한심사의 처리) 제1항에 의거하여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2) 승적 말소란 본 종 승려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함을 뜻합니다.
3) 모든 작성서류 및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및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시 종법에 의거하여 승려로서의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분한신고 양식 다운로드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 →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의처
각 교구본사 종무소
직할교구사무처 02)2011-1930~1932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02)2011-1703~1705

불기2564(2020)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

■2011년도 제정된 승려복지법에 의해 시작된 승려복지제도가 2020년 올해 10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종단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과 함께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2,600여명의 스님들께 11억여 원 이상을 지원해 드렸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운영과 보다 많은 스님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하오니,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근거종법 : 승려복지법
●납부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납부금액 : **월10,000원** (단, 구족계 수지 5년 이하 월5,000원 – 2016년 이후 수지 : 2020년 기준)
●납부개시 : 2020년 7월부터(사전 선납 가능함)
●납부방법 : 계좌이체
(소정양식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작성)

▫ CMS(자동이체 : 승려복지회에서 7월에 출금 등록)
▫ 계좌이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국민 023501-04-262677, 농협 301-0262-9883-41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입금하시는 스님의 법명과 성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
●소정양식 : 조계종 홈페이지(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의 : 총무원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

불기2564(2020)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현불 논단

코로나19와 저널리즘

이화행
동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다매체 경쟁 환경 노출
허위 · 거짓 정보의 범람
과학적 사실 입각 보도
전문성 높여 신뢰 높여야

사회적 영향 비판 분석과
사실 · 의견들 철저히 분리
코로나 불확실성 확대상황
신뢰 재창출 모습 필요해

원시인들은 주변 환경을 직접 관찰하는 일을 먹거리를 찾는 행위만큼 중요시 하였다. 원시인에게 환경 관찰, 즉 정보 추구 행위는 신체적 위협 요인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 조치였기 때문이다. 초연결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직접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각종 미디어가 거의 무제한의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미디어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가? 우리는 미디어를 얼마만큼 신뢰해도 되는가?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이 되고 있다. 대륙 및 국가별 감염자와 사망자 통계 수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준다. 언론은 뉴스가치가 높은 코로나 사태를 연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언론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SNS,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개인미디어로 인하여 언론은 독점적 정보생산자의 지위를 누리던 과거와는 달리 다매체 간 경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은 뉴스이용자들이 이들 신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손쉽게 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언론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산물인 뉴스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곧 저널리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인데, 이것을 소위 저널리즘의 전문직주의라고 한다. 언론사 내에 건강이슈를 전담하는 의학부를 두거나, 의학을 전공한 의학전문기자를 두는 등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는 바람직한 건강보도를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보게 한다. 첫째, 언론은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질병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광우병, 메르스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건강 이슈나 복잡한 질병의 경우 언론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많은 언론의 주장이 학술적으로 허위로 밝혀진 지난 광우병 사태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언론은 일반시민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응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내용이라 하더라도 질병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안 된다. 전달하는 정보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되 동시에 실용적이고 함축적이어서 일반인이 응용하기 쉬어야 한다.

셋째, 이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건강 문제와 관련한 사회 규범을 바꿀 수 있는 인식, 믿음 체계,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논쟁이 되는 건강 이슈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넷째, 언론은 관련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사실과 의견을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감염자 확산 상황을 보도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추측성 주장과 해설을 뒤섞어서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거나 적대적인 국가의 전염 상황에 대한 보도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 대응 정책과 같은 건강 이슈가 정치 분야와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사실과 의견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객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삶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코로나 확산의 속도나 범위가 드라마틱해지면 할수록 팬데믹 관련 가짜 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코로나 국면에서 신뢰를 재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뇌세포를 쉬게 하라

우울한 감정에 사로 잡힌 자, 회한으로 한숨 짓는 자, 분노에 차 있는 자, 질투심에 불타는 자, 명랑하게 흥얼거리는 자, 배타적 감정을 품은 자, 이렇게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여섯 사람이 분비한 땀을 채취해 정신과 전문의가 분석한다면, 각각 사람이 품은 감정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수 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혈액이 가장 왕성히 순환하는 곳입니다. 혈액이 청결하고 신선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과 동시에 피로 물질을 깨끗이 씻어 없애 준다면 아무리 두뇌를 활동시키더라도 뇌수는 결코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활력을 갖고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혈액 속에 공포와 번뇌 등으로 생성된 독소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면 그 독즙으로 뇌수 세포는 금방 피로를 느끼고 지치게 됩니다. 영양분 대신 독소를 공급 받게 된다면 재능을 맘껏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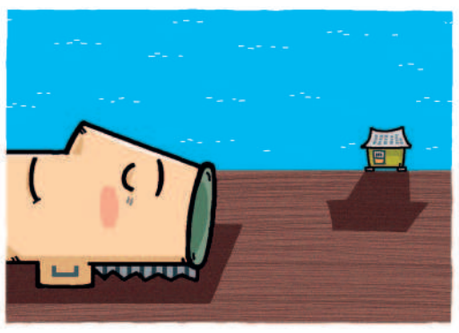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정서 겪는 정신적 갈등은 가족들 건강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라도 그 곳에 분란이 생기면 정신병이나 히스테리 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생성된 혈액이 항상 뇌수세포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소는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생성되는 독소보다 훨씬 더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며, 머리는 항상 무겁고 마음은 초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정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여기서 음주와 도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이 싹트죠. 결국 그 신경 세포는 여러 가지 독소로 파괴돼 불면증, 신경쇠약, 히스테리를 가져옵니다. 나아가서는 회복 불능의 광기까지 유발합니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도 이런 상황에서 도박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번민한다는 것은 마치 천리를 달리는 준마가 자기 등에 앉은 한 마리의 파리를 보고 이 파리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과 같죠. 아무리 훌륭한 준마라도 한 마리 파리를 쫓는데 갈팡질팡 한다면 결코 경마장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 분노, 질투심, 절망 등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뇌세포를 편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편안하면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사찰 재정난, 국가 관심 필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4명이 늘어 92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좀처럼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찰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재정 타격이 심각해서다. 대책으로 교역직 스님들의 월보시금을 삭감하고 있지만, 재정난 해소되기는 어렵다.

조계사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운영재정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봉은사도 예년 대비 10% 수준으로 재정이 감소했다. 주요 교구본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문화재관람료를 통해 사찰 내 문화유산들을 유지 · 보존하고 있지만, 참배객이 줄어 수입이 전무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문화재관람료 사찰들은 재정난과 함께 문화재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찰 재정난에 어려워진 것은 사찰들의 분담금을 통해 종단이 운영되는 종단도 마찬가지다.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의 월보시금 중 일부를 종단운영비로 회향하기로 했다.

전국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조계종은 세 차례에 걸쳐 지침을 내렸고, 일선 사찰들은 이에 따라 법회 중단과 행사 및 모임 취소 등을 일사분란하게 시행했다. 현재 한국종교에서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스님들이 상주하며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유지 ·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사찰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총선 후보, 문화재관람료 주목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정당은 후보 공천을 마치고, 후보들은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4월 15일이면 국정을 책임질 국회의원 300석이 채워진다.

국회의원이 돌아봐야할 국가정책과 민생과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현안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불교계 현안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계절마다 산으로 몰려드는 등산객을 감안하면,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국민적인 현안이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항상 문화재관람료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해왔다. 이번 역시 각 정당과 후보캠프에 배포한 정책자료집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의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67년 공원법의 제정이다. 당시 정부는 불교계의 동의 없이 사찰 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했다.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후 공원입장료와 병합했으나, 참여정부 당시 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불교계 입장은 명확하다.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가치와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찰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불교계는 피해자이면서도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해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사안을 살펴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5~3/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3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5	초기 불교 이해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6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	유선경/홍창성	운주사
7	간추린 한국 선 사상사	정영식	운주사
8	10분 치유 명상 : 문화 치유 명상	송주 김응철	불교신문사
9	수좌 적명 :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의 유고집	적명스님	불광출판사
10	비나야삐따까 : 율장전서	퇴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책세상

"붓다는 무엇을 깨닫고, 가르쳤을까?"



사성제

일묵 스님 지음/불광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성제는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뒤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행한 설법
〈사성제〉, '괴로움 소멸' 위한 초기 수행 가이드… 붓다 근본 가르침
현학적인 언어를 배제하고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사성제 뜻을 정리

25년 전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출신의 10여 명이 동시에 출가해 화제를 모은 일이 있다. 그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일묵 스님. 이 책은 당시 서울대 수학과 박사 과정 중에 출가한 스님이 7년 만에 펴낸 신간이다.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친 스님은 새의 양 날개처럼 교학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완벽한 수행법을 '사성제(四聖諦)'서 찾으며 연구에 매달려 왔다. '사성제'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붓다의 수행과 깨달음의 핵심 내용인 사성제를 단독 주제로 한 대중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초기불교 경전 니까야를 중심으로 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는 사성제가 단순한 '이론 체계' '사상'이 아닌 삶과 수행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가르침'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교리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사성제가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집중해, 사성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바른 견해이자 바른 수행법이며, 깨달아야 할 진리임을 밝힌다. 이 책은 문자에 갇힌 불법(佛法)이 아닌, 내 삶과 수행의 기준으로 삼는 생생한 불교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불교 교과서'가 되어 준다.

우리는 지금껏 사성제를 잘 모르고 있었다. '사성제(四聖諦).' '고(苦) 집(集) 멸(滅) 도(道)'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뒤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행한 설법이다. 이 책에서는 사성제를 붓다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사성제가 오늘날 많은 불교 전통, 이를테면 남방 상좌부불교, 북방 대승불교, 선불교, 티베트 불교 등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불교사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도 불교가 오랫동안 여러 지역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변화해 왔지만 사성제가 붓다의 근본 가르침이자 핵심이란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토록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왜 단순한 개념 정도로만 암기하고 있을까? 네 글자, 한 줄 정도로 요약된 개념을 외우기만 하면 사성제를 터득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붓다의 가르침의 기본은 '괴로움에 대한 통찰'서 시작된다. 사성제란 무엇인가? 바로 '이 세계는 괴로움(苦)이며, 괴로움의 원인(集)은 욕망이고, 괴로움을 소멸(滅)하기 위한 길(道)'에 대한 가르침이다. 압축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라 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이 불교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는 붓다의 수행 여정을 살펴보자.

붓다는 생로병사의 근원적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가한 이후 줄곧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관점을 견지했다. '나는 이전도 지금도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을 천명할 뿐이다.'(〈아누다라 경〉) 붓다의 이 말 속에는 제자들에게 설한 다양한 가르침이 실은 사성제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설한 것임을 뜻한다. 상수 제자 사리뿟다는 '불교의 유익한 법들은 모두 사성제에 내포된다.'(〈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라고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괴로움의 소멸(행복)'이다. 그것은 붓다가 우리에게 법을 전한 이유이며, 붓다가 전한 가르침의 전부이자 궁극이다. 즉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성제를 통한 삶의 괴로움에 대한 통찰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며, 괴로움에 대한 바른 통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성제는 매우 심오한 가르침이기에 사성제를 혼자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불교 경전은 그 양과 내용이 방대하다. 자칫 가르침의 핵심을 짚어 줄 스승이나 지침서 없이 경전을 읽게 되면, 그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만다.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서인 아비담마를 통해서 사성제를 이해하는 데도 다소 문제가 있다. 아비담마는 부파불교 시대에 각 부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법(佛法)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과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논서이므로 실제 수행의 지침서라기보다 논리적인 완결성을 추구하는 현학적인 이론 체계에 가깝다. 그래서 아비담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추상적인 관념에 빠져 현실에서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실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수행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사성제는 단순한 이론 체계나 사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붓다가 몸소 체득한 진리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로서 불교 수행의 올바른 방향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 방법까지 드러내는 심오한 가르침으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사성제는 불교 교리의 차원을 넘어 수행의 관점으로 접근한 논의를 찾기 어려웠다. 저자는 이 점에 주목했다. 사성제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현학적인 언어를 배제,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사성제의 뜻을 정리했으며, 읽는 순간 내 삶과 수행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데 진력했다.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자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집필 기준이다.

불교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 종교,

사성제는 '실천적 가르침'이다.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이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교리와 수행을 분리하는 데 있다. 사성제를 개념 정도로 외우는 데 그치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불법의 지혜를 쌓아도 사성제와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당연히 사성제가 가리키는 올바른 방향을 자신의 삶과 수행에 연결하지 못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고, 집, 멸, 도의 단순한 뜻풀이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실천적 가르침'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붓다는 사성제를 깨달으며 번뇌를 버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했다. 붓다는 평생 이 가르침을 전하며 '너희도 나처럼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붓다의 말처럼 우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을 통찰하고 번뇌를 소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쳐 주고자 한 깨달음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데 있다. 삶의 모든 것을 사성제에 따라 이해하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이어 가고, 정진하고, 기억하고, 삼매를 계발함으로써 번뇌를 버리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독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했으면 하는 저자 일묵 스님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번잡함 가운데 책 한 페이지 읽기도 만만치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탁한 세상에도 깨달음을 위한 길이 있다면 이 한 권의 책을 공부하는 게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은 불법을 자기 삶과 수행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불교 교과서'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먼저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반으로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사성제 각각의 진정한 의미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각각의 지점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할 법(法), 나아가 사성제가 삶과 수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준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간다.

사성제 단독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분량은 만만치 않다. 가장 분석적이라고 알려진 초기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아우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겁내지 마시라. 이 책은 그러한 고리의 핵심을 꿰뚫는 체계적인 구성과 대중적인 해설, 적절하고 풍부한 경전 인용으로 사성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알기 쉬운 내용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서론에서는 붓다의 수행 일대기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된 사건에 주목한다. 이는 붓다의 수행 방향과 견해의 전환점으로서 바른 수행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에서는 사성제를 이해하여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본다. 그런 사람은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은 열심히 닦는다.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저자 **일묵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서 원택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고 봉암사, 미얀마 파욱국제명상센터, 영국 아마라와띠, 프랑스 플럼빌리지 등 국내와 세계 불교 수행처서 수행했다. 2009년 서울에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따와나선원을 개원했고, 2018년 강원도 춘천에 수행 도량을 마련하여 이전했다. 현재 춘천 제따와나선원의 선원장으로 머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저서로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스님이 들려주는 초기불교 윤회 이야기〉 등이 있다.



붓다가 최초로 발견한 명상의 본래 모습,
사마타(定)와 위빠사나(觀)의 세계!

이제, '명상은 수행'이라는 본래 목적을 찾아야 한다!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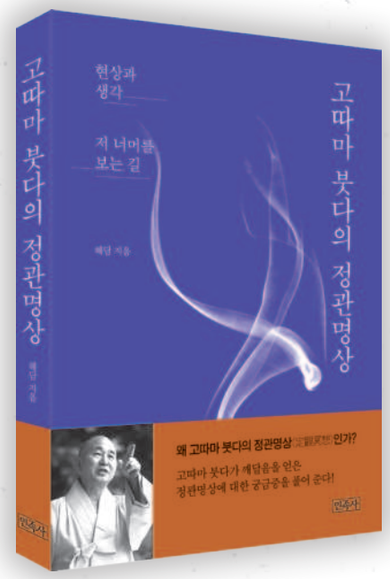
고따마 붓다의 정관명상

혜담 스님 지음 | 254쪽 | 값 13,800원

삶의 근본적 변화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자 명상!
누구나 명상으로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처방전!

우리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수행은 출가 수행자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요즈음 수행이라는 이름 아래 명상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명상이 '명상은 수행이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머리말 중에서

혜담 스님 | 부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업.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제방선원에서 참선 수행.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소청심사위원·호법부장·재심호계위원 역임. 〈불교신문〉 논설위원·〈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깨달음의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다. 역저서로 《대품반야경(상·하)》 《新 반야심경 강의》 《방거사 어록 강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진리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민족사 40년 전통, 불서 출판의 명가 www.minjoksa.org 02)732-2403~4

이 땅의 불교 넓힌 노장 나이테



오대산 노송·연암현해 스님 회고록

연암현해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9천5백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연암현해 대종사

연암현해 대종사 회고록 출간

1958년 오대산 월정사서 출가

동국대 불교학과 종비생 1기

2007년 원로의원 · 대종사 추대

4개 국어 〈법화경〉 3권 완간

"나 자신을 돌아보니 마치 구부러진 오대산의 병든 노송(老松)과 같아서 타인들에게 그늘이나 좋은 쉼터를 주지 못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학승으로 불리는 연암현해 스님이 회고록을 출간했다. 〈오대산 노송〉이다. 어느덧 구순을 바라보는 스님은 자신을 오대산 노송에 비유했다.

"나는 보배보다 값진 그 마음을 알고 싶었다."

1958년, 스물네 살의 청년은 무작정 오대산 월정사를 찾았다. 전쟁 이후 혼돈의 시대에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된다. 지난한 세월을 지나온 스님은 어느덧 구순을 바라본다.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현해 대종사. 한국불교의 산 역사이자 대표적 학승으로 종단을 받치고 있는 현해 스님의 삶과 수행의 시간은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초인의 삶이다.

돌아보니 자신이 마치 오대산의 굽고 병든 노송 같아서 대중에게 넓은 그늘과 쉼터가 되어주지 못한다고 탄식한다. 하지만 숲은 노송들의 나이테가 넓혀온 것. 노송은 분명 숲을 넓혔고, 노장은 이 땅의 불교를 넓혔다. 책은 오대산 노송의 나이테다.

제1장 '기독교 집안에서 피어난 법연(法緣)의 꽃'은 스님의 출가 전 이야기이다. 해방 이전의 어려운 생활상과 가족들의 이야기, 학교 진학의 어려움과 공부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품고 방황하는 청년기의 삶을 볼 수 있다.

제2장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하다'는 은사 희찬 스님을 만나 출가하여 수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했으며, 돈과 명예, 권력 등에 얽매이지 않은 대자유의 삶을 회고한다.

제3장 '만행과 운수 행각의 길'에서는 흥복사 주지 직무대행 소임을 보면서 겪은 일화를 소개한다. 비구와 대처의 갈등 속에서도 묵묵히 불사를 일으켰으며, 절도와 강도 사건을 만난 이야기, 인근 초등학교 교장과의 마찰 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4장 '동국대 종비생 1기, 희망의 꽃을 품다'는 청년기 공부에 대한 열망은 출가 뒤에도 이어졌고 다시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종비생(宗費生) 제도가 생겨 제1기 종비생으로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뒤 종비생들이 중심이 되어 불교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이야기도 보인다. 대학에 다니는 승려는 환속 준비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딛고 묵묵히 학업에 정진했던 모습과 동국대학교 재학 승려들을 모아 '석림회'를 창립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제5장 '나의 스승 나의 은사'에는 은사 희찬 스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과 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범룡, 석주, 청담, 벽안 스님 등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특히 벽안 스님의 휘호 '고해보벌(苦海寶筏,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보배로운 배)'은 일본 유학길에 오른 현해 스님을 배웅하기 위해 벽안 스님이 김포공항에 직접 나와 격려하며 전해준 것으로 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제6장 '만학도, 현해탄을 건너다'에서는 〈법화경〉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일본 유학생활의 면면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보게 한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를 소개하며 일본 학계에서 검소함과 치밀함을 배웠다고 한다.

제7장 '회향, 수행자로 사는 법'에서는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직후 중앙승가대학 부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10 · 27법난의 아픔 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와 더불어 월정사 주지,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느낀 수행자로서의 삶에 대한 깨달음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

제8장 '낙엽귀근(落葉歸根), 돌아갈 자리를 생각하며'에서는 조계종의 어른으로서 청정승가의 수행 가풍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강조한다. 조계종 종통관(宗統觀)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며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은 이후 불교계 원로로서 한국불교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월정사와의 법연으로 입은 무량한 은혜를 회고한다.

지나온 시간을 담담하게 전하는 현해 스님의 말씀은 때로는 박장대소로, 때로는 눈물로 읽힌다. 누군가에게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근현대불교사를 관통하는 한국불교의 역사를 보는 시간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불교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일 수 있다. 현재 자신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현해 스님의 이야기는 다른 깊이와 모습으로 다가온다.

저자 연암현해 스님은 1935년 경남 울산에서 9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나, 1958년 월정사에서 만화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0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종비생 1기로 입학해 1968년에 졸업했으며, 197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초청 유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고마자와대 박사과정을 마쳤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했다. 월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제3 · 7 · 10대 종회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 및 대종사로 추대됐다. 〈법화경요품강의〉를 펴냈으며 4개 국어 대조본 〈묘법연화경〉을 3권으로 완간했다.

현재 (재)불교문화진흥조계종 성찬회 이사장, 월정사 및 법종사 회주로서 월정사 서울포교원 법종사에서 대중을 만나고 있다. 법문집 〈아프니까 더 살 만한 세상〉 등이 있다.

과학으로 증명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

도슨 처치 지음/ 최경규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2만2천원

우리의 주관적 마음[생각]이 객관적 세계[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유전자와 뇌의 후천적인 변화, 기적적인 치유와 사회적 혁명 등을 통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신간, 〈깨어 있는 마음의 과학〉이 출간됐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생각하는 것이 모두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한 쪽을 절대적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책은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 책은 두 정의 사이에 넓은 '중간 마당'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중간 마당을 탐구한다.

"우리는 자기 생각의 극한까지 창조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그 잠재력의 한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고 만족스럽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몽상 같은, 현실이 될 수 없는 생각만 좇는 것은 원치 않는다. 엄밀한 과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탐구해보면, 그 중간 마당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밝혀진다. 연구결과는 의도적으로 잘 사용하기만 하면 생각은 일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음과 물질 관계 과학적으로 증명

마음이 몸을 기적적으로 치유·변화

책은 마음의 창조력의 배후를 이루는 과학을 살펴본다.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어떻게 물질적 형체를 창조해내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연구들을 살펴본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들어맞아가는 동안, 과학은 형이상학보다도 더 놀라운 면목을 드러낸다. 또한 역사적 사례들 '마음이 물질화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생생하고 믿을 만한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의학, 심리학, 스포츠, 과학의 세계로부터 가져온 이야기들은 심오한 것으로부터 영감을 주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까지, 온갖 내용을 망라한다. 이것들은 생각이 물질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신호로서 뉴런들을 통과해가고, 뉴런들의 동시적 발화는 전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장은 우리 주변의 물질들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책은 마음과 물질의 이 놀라운 관계를 밝혀주는 최신의 연구결과들을 가득 담고 있다. 후생유전학, 신경학, 전자기학, 심리학, 진동학, 양자물리학을 넘나드는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의도와 생각이 외부의 물질세계에서 실현되어 가는지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더욱 촉진해 줄 특정한 마음 상태를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다.

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마음으로 몸을 바꿀 수 있을까?' 현대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뇌 신경회로의 용량은 늘어나며 그 반대의 것들은 점차 떨어져나간다. 마음을 바꾸면 뇌에서는 정보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인간의 뇌는 늘 재배선되는 것이다. 뇌는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반응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책에 인용된 연구결과들은 마음이 몸을 기적적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유전자를 변환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국 마음이 몸을 바꾼다는 것이다.

둘째,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사회개혁이나 위대한 발명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처음엔 고작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다. 책은 생각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한다. 작은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셋째, '물질은 에너지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우리는 에너지가 물질의 부수적 현상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책은 몇 가지 연구 자료만으로 그 믿음을 부정한다. 물질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물질을 만든다는 것이다.

각 장의 말미에는 그 장에서 나온 생각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습의 목록을 제시한다. 또한 각 장의 확장판인 온라인 버전의 링크도 있어서 독자의 경험을 확대시켜준다. 그 안에는 동영상, 오디오 파일, 사이트 링크, 사례 등과 다음 장에서 탐사할 아이디어에 대한 예습이 포함되어 있다.

박재완 기자



국보 · 보물 괘불탱 원형 살피다

성보문화재硏 · 문화재청, '대형불화 조사 보고서'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곡사 · 법주사 등 7점 조사해
원형 자료 · 세부 도판 등 망라
분광분석 통해 염색재료 분석
올해엔 칠장사 괘불탱 등 조사

국보 · 보물급 괘불탱을 과학적으로 정밀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현문)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15년부터 10개년간의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7건의 대형불화를 조사했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담은 〈대형불화 정밀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형불화, 일명 괘불탱은 야외에서 봉행되는 영산재(靈山齋), 수륙재(水陸齋) 등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다. 10여m가 넘는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 · 무형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성보문화재다.

하지만 괘불탱은 궤에 넣어 보관하는 특성상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잘못된 보수 · 보존으로 2차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 보존을 위한 원형 기록은 필수다.

이 같은 이유로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에는 조계종 총무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국보 제302호) △법주사 괘불탱(보물 제1259호) △개심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64호) △은해사 괘불탱(보물 제1270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도(보물 제1642호) △김천 계림사 괘불도(비지정) 등 총 7건의 대형불화를 조사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7건의 대형불화를 정밀 실측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채색 정보, 세부 도판, 관련 유물 등에 대한 원형 자료 및 보존 현황 정보 등 종합 조사 결과를 담아냈다.

특히 자외선-가시광선 반사 분광 분석을 이용한 염색 재료 분석, 보존 환경 개선을 위한 미생물 조사, 채색 기법 연구를 통한 제작 방법과 전통 안료(물감) 사용 방식 검증 등 새롭게 시도한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수록했다.



보물 제1270호 은해사 괘불탱. 조사를 통해 바탕재가 18세기 괘불탱 중 유일하게 56.6~67.2㎝ 넓이의 특수 비단인 '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새로운 분석 기법을 통해 괘불탱 재료와 안료 등을 확인한 것은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실제 조사를 통해 보물 제1270호 은해사 괘불탱의 바탕재가 18세기 괘불탱 중 유일하게 56.6~67.2㎝ 넓이의 특수 비단인 '초(綃)'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초'는 누에고치에서 뽑은 가늘고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실로 제직한 평직의 비단 직물로 치밀하지 않게 제직해 직물이 얇고 투명하다. 고려 · 조선시대에는 복식뿐만 아니라 회화의 바탕재로 사용됐다.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에서 화면 장식을 위해 은박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보물 제1259호 법주사 괘불탱에 남아 있는 유소(流蘇, 깃발이나 가마 등에 갖가지 실로 매듭짓고 꼬아서 다는 장식)로 괘불탱 장황의 장식사례가 새롭게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대형불화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복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성보문화재연구원과 함께 2015년부터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일반 공개를 통해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국보 제296호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 등 7건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 재료 전문기관 건립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본격화

문화재 수리 재료를 전문적으로 수급하는 국가 기관이 건립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봉화군 풍정리에 이달부터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을 본격 시작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문화재 수리용 재료를 국가가 직접 확보해 시장에 공급하는 문화재 수리 재료 전문 기관이다. 센터는 국내 시장에서는 구매가 어려워 현재는 외국산 수입목으로 대체되거나 공사단가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거래되는 품목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문화재 수리 공사는 재료 선정과 품질 관리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재료 수급 전문기관의 설립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 특대재 소나무의 경우 내부 심재까지 건조가 어렵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3년 이상 건조할 경우 강도와 내구성이 좋고, 잘 썩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목재 보관에 따른 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로 현재는 사실상 시장에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문화재수리용 소나무 공급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부지로 경상북도 봉화군을 선정하였다.



문화재수리재료센터 배치도

봉화군 풍정리에 이달부터
특대재 松 수급 · 공급 계획
오는 2023년 12월까지 건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특대재 소나무와 같이 수급이 어려운 재료를 보관 · 처리하는 시설로 구성된다. 경북 봉화군 풍정리 247번지 일대에 세워지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대지면적 약 210,000㎡, 연면적 9,900㎡ 규모로 설립된다.

센터는 재료연구동과 운영시설, 공영공간으로 구성되며, 핵심 시설인 재료연구동에는 △목재보관소 △전처리실 △치목장 △부재보관소 △재료실험실 등이 들어선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39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5개년간 시행하게 되며,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업체가 선정됐다. 이달부터 2021년 6월까지 56억 원을 투입해 기본 ·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 변경,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건립사업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협업 형태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내용 중 군 관리계획 수립, 토지매입, 주변 연결 도로의 확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센터가 건립되면 제재된 목재 기준 지름 45㎝ 이상의 국내산 소나무,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재형 소나무, 강이나 산에서 수집되는 자연산 막돌 등 문화재 수리시장에서 수급이 어려워진 재료들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주목! 학술서
이광준의 〈붓다의 법담학 연구〉

붓다가 설한 '법담' 新 이론체계 정립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다. 불교 역시 이를 도입해 불교심리학과 불교상담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한다. 이 같은 학문체계는 서구 심리학과 상담학 이론을 바탕으로 정립됐다.

선심리학을 연구해 온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이 최근 내놓은 연구서인 〈붓다의 법담학 연구〉는 불교상담학의 이론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고, 원론적으로 다시 재정립하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를 한다. 그 원천은 경전에서 붓다가 설한 '법담(法談)'이라는 키워드에 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붓다의 법담학 연구〉는 먼저 법담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담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심리법담을 제시한다.

붓다에게서 보는 법담체계의 전형들을 불교경전 가운데 찾아내서 정리하고 분류한 점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의왕으로서의 붓다와, 붓다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사무량심과 대자대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도와 연기, 불성의 개발을 탐구하면서 붓다의 구제사상과 법담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붓다의 법담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논하고 있는데, 이해 능력과 수준에 대응해 법담을 한다는 뜻인 '대기법담'과 단계별로 설법하는 '차제법담', 훈계하고 이끌어 가르치는 '교계법담(教誡法談)'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붓다의 법담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불교의 심리치료 방법에 대해 고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좌선요법, 위력요법, 염력요법, 광명요법 등 불교의 다양한 치료법들을 소개한다.

저자인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은 "불교경전 중 존재하는 심리학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것인 '불교법담학'"이라면서 "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중생구제론이자 치료심리학의 진면목을 보여줄 학문분야"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20만 구독자’ 유튜브 스님에 매료

日 ‘다이구 화상의 1문1답’ 다양한 연령층 인기

박영빈 객원기자

최근 SNS와 유튜브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의 포교활동이 주목받는 가운데, 일본에서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님의 유튜브 채널이 화제다. 3월 19일 일본의 ‘아키타 사키가케 신보’ ‘마이도나 뉴스’ 등은 유튜브 채널 ‘다이구 화상의 1문1답’을 집중 조명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다이구 겐쇼 스님(大愚元勝, 48)은 아이치현(愛知県)의 유서 깊은 사찰인 후쿠곤지(福嚴寺) 31대 주지다. 후쿠곤지는 15세기 말에 창건된 조동종 사찰로, 지역신앙의 중심지로 이름 높다.

다이구 스님이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의 경력은 매우 다채롭다. 사찰의 후계자로 태어나 3살부터 불경과 종무를 익히기 시작했다. 이른 나이에 자의가 아닌 출가생활을 시작한 스님은 “결국 이대로 스님으로 살고 싶지 않아 절에서 도망쳐 방랑했다”고 말했다.

사찰 밖에서의 스님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32세에 창업, 불교를 이념으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이때 쌓인 부채 1억 엔을 5년 만에 모두 변제하는 등 실업가로서도의 실력도 상당하다. 현재 스님은 카라테 사범, 테라피스트, 사장, 교육자 등의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38세가 되어서야 다시 사찰로 돌아와 출가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스님은 자신이 쌓은 다양

아이치현 후쿠콘지 주지스님
말 못할 개인적 고민 돕고자
유튜브로 대중과 소통 나서
소년부터 노인까지 질문해와

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포교와 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이구 스님은 1문1답이라는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지금은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예전엔 한밤중이라도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7~8년 전 어느 보살님이 ‘방황하는 딸로 가정이 붕괴 직전’이라며 상담을 요청한적 있었다”



1문 1답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구 스님. 사진출처=사키카케 신보

고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보살님의 설득으로 딸이 절에 찾아와 3자 대면을 하던 날, 그 딸은 내가 보는 앞에서 손목을 그어 자해했다.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때 ‘이 세상엔 남에게 말도 못하고 깊이 고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실감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고민 끝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스님은 “재적사찰이 있다 해도, 가볍게 주지스님을 만나 상담을 하기는 어렵다. 또 스님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거기에서 익명이 가능한 유튜브를 생각해냈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가 가진 기능에 기대한 점도 있었다. “유튜브는 짧은 시간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가능성이 가득한 매체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현재는 80세부터 11세의 소년까지 질문을 해온다”고 스님은 전했다.

주위에 선전 없이 시작한 유튜브는 어느 순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스님은 “특별히 넓히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에서 채널을 구독해 놀랐다”며 웃어 보였다. 현재 스님의 유튜브 채널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다. 해외 구독자들 가운데 외국어로 스님의 영상에 자막을 달면서 세계 각국의 구독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도 있다.

스님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사찰은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이 기댈 수 있는 장소’로 지역사회 속에 뛰어 들어야 한다”며 더욱 다양하고 진지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티베트, 15세기 마애석불군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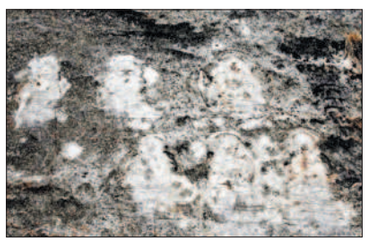
동부 내륙서 대규모로… 진언 · 불경 암각도

동부티베트 산속에서 대규모 마애불이 발견됐다. 3월 20일, 중국의 ‘신화통신’과 ‘AFP 뉴스’ 등은 600년 넘게 숨어있던 마애불들을 특별 보도했다.

마애불이 발견된 곳은 동부티베트 내륙인 캄 지역, 쎄르쑬현(現 스촨성 간즈장족 자치주) 쩨다 지구에 소재한 산이다. 이번 발견은 마다사원의 제보로 이뤄졌다. 베이징 고궁박물원 티베트불교 문물연구소의 뤄원화 소장은 “2017년 연구소의 조사팀이 마다사원의 벽화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스님이 ‘산 위에 벽화와 동시대의 마애불들이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조사팀은 현지조사를 통해 대규모 암벽이 늘어선 산기슭에서 다양한 마애불들을 발견했다. 산기슭에서 시작한 마애불들은 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조성됐다. 주로 불보살을 중심으로 조사상이나 불탑 등의 도상이 발견됐다. 마애불들은 대부분 음각선화로 새겨졌으며, 일부는 얕은 부조로 조성됐다. 마애불 외에 진언이나 불경을 암각한 것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발견으로 꼽히는 것은 불족석으로 추정되는 암각화와 고대 티베트 비문이다. “불족석은 높이 최대 2m로 이렇게 거대한 것은 티베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작례”라고 조사팀은 말했다. 특히 산 정상 부근의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된 고대 티베트 비문은 버터기름을 도포하는 티베트 특유의 풍화방지책으로 보존돼 있었다. 그러나 훼손이 심해 비문을 판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암벽에 새겨진 마애석불군의 일부. 사진출처=신화통신

뤄원화 소장은 “마다사원 측의 자료에는 사찰을 중창한 15세기에 중창을 기념해 마애불을 새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비문의 발견으로 훨씬 이전 시대부터 마애불이 조성됐을 것을 추정된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다사원의 빨댄 스님은 “불족석에 대해서는 사원의 창건주였던 빨댄따시 대사의 발자국이라는 전설이 있어 보존에 신경 쓰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다는 말에 놀랐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호주 불광산사 ‘온라인법회’ 모범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준비
예불 · 강의 · 대중법회 선봬

호주 퍼스의 불광산사에서 보인 선견지명이 눈길을 끈다. 호주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온라인 법회를 시작, 소셜미디어 등으로 신행활동을 지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2일 호주 공영방송 SBS뉴스는 불광산사의 온라인 법회를 보도했다.

호주 퍼스 불광산사는 호주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2월에 산문 출입을 제한했다. 퍼스 불광산사의 주지 미아보 스님은 “페쇄조치는 대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불광산사 대만 본산과 호주 불광산사 본사의 논의 끝에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우리는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사찰의 문 앞에 손세정제를 두고 모든 방문객의 체온을 검사할 수 있도록 체온계를 두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퍼스 불광산사의 좌선실에는 매주 수백 명의 불자들이 수행을 위해 찾았지만 현재는 오직 상주하는 스님들과 최소한의 자원봉사자들만이 남아있다.



퍼스 불광산사에서 온라인 법회를 돕고있는 자원봉사자. 사진출처=SBS뉴스

불광산사의 대변인이자 자원봉사자인 그레이스 콜린스는 “스님들은 이미 사스(SARS)와 같은 감염병을 대처한 경험이 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악화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선행조치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퍼스 불광산사는 출입을 제한한 2월부터 법당에 깔려있던 좌복을 모두 치우고, 법당에 비치된 모든 법구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또한 산문에 노약자는 예불에 참석하지 말라는 요청과,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온 불자는 14일간 사찰에 방문을 금지한다는 대자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게시했다.

불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자 대중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신행활동을 이어나갈 방법을 강구했다. 현재 퍼스 불광산사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법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아보 스님은 “매일 진행되는 조석예불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중계하고 있다. 이외에 진행되던 불교강의와 경전공부, 대중법회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녹화방송 공유 등을 통해 법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곧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퍼스 불교계는 약 4만여 명의 불자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봉행할 예정이었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가정집서 찾은 고대 금동불

TV골동품 프로그램 출품, 감정가 7억3000만원

영국 가정집에 잠들어있던 고대 금동불이 발견됐다. 3월 23일 영국 일간지 ‘메트로’는 TV 골동품 감정프로그램에 출품된 두 구의 불상에 대해 보도했다.

BBC가 방송하는 골동품 감정 프로그램인 ‘앤티크 로드쇼’는 1979년 시작돼 지금까지 인기를 끄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화제의 불상은 지난주 영국 웨일즈 국립식물원에서 중계된 화에 출품됐다. 소장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1920년까지 고미술상을 운영하셨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던 당시, 캘커타에서 구입한 진품으로 알고 있다”고 소장 경위를 밝혔다. 출품된 불상들은 두 점으로, 금동 따라보살상 한 점과 금동판에 부조로 새겨진 신장상이다. 따라보살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후기 인도 대승불교에서 널리 신앙된 보살이다.

불상의 감정을 맡은 아시아 미술 전문가 존 엑스포드는 “이 불상들은 티베트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보존상태가 완벽하다. 금박에 일부 탈락이 있고, 광배와 좌대에 탈락된 부분이 있지만, 12세기에 조성된 불상들이기에 이상할 것 없다. 또 보기 드물게 불상 전체에 상감된 보석들이 대부분 남아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화 7억 3천만원으로 책정된 금동 따라보살상. 사진출처=BBC

존 엑스포드는 금동부조신장상에 한화 7300만원의 감정가를, 금동 따라보살상에는 7억3000만원의 감정가를 책정했다. 존은 “이 불상은 영국역사로 따지면 노르만 정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들어졌다. 지금은 대략적인 가격일 뿐 7300만원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불상들”이라고 감정평을 내렸다.

김민재 객원기자





문학·연극으로 전해진 목련존자 孝行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⑦ 목련경 변상도

동아시아 최고의 효자를 꼽는다면 아마도 목련존자가 아닐까. 생전의 악행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고 어머니를 구한 목련의 이야기는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알고 있는 고사이다. 목련(目連)은 산스크리트어인 'Maudgalyāyana'를 음사한 목건련(目健連)의 약칭이다. 그는 기원전 5세기 경 중인도 마가다국의 바라문 출신으로, 여섯 종류의 초인적 능력을 얻어 신통제일이라고 칭송됐다. 처음에는 육사외도(六師外道)의 한 사람인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였으나, 후에 사리불(舍利弗)과 함께 석가모니에 귀의해서 제자가 되었다.

목련이 어머니를 구한 이야기가 기록된 경전을 〈목련경〉, 〈불설대목련경〉 혹은 〈목련구모경〉으로 칭하며 송대(宋代) 법천(法天)이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란분경(盂蘭盆經)〉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변문(變文)이다. 〈목련경〉이라는 명칭 때문에 불교경전으로 오인하기도 하지만, 불교경전이 아닌 문학의 한 형식으로서 어떠한 대장경에도 속해져 있지 않다. 한편 〈목련경〉의 근원이 되는 〈우란분경〉은 서진(西晋, 265~317)시기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산스크리트어 원전이나 티베트어 역본이 존재하지 않는 위경(僞經)이다. 〈우란분경〉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의 제자가 된 목련이 신통력을 얻어 망자의 세상을 살펴보니, 생전에 불법을 비방한 어머니가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져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목련의 어머니는 음식을 집어 입에 넣으려고 할 때마다 불에 타 재가 되어 먹을 수가 없었기에 피골이 상접한 아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목련이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하려 하였지만, 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여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 음력 7월 15일에 여러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우란분회(盂蘭盆會, ullambana)를 열어 아귀도에서 어머니를 구해내었다.

당나라의 불교계는 승려의 강경활동과 대중화를 위하여 불교의 중요한 내용을 속강(俗講)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불교의식과 문학에 세속적인 요소가 많이 유입되었다. 그 결과 당대부터 발생한 변문이 유행하였고 불교미술에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현재 중국의 하서지역 석굴사원 및 돈황 장경동에서 출토된 다양한 종류의 변문과 이를 도해한 변상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목련변문'과 '항마변문'이다.

'변문'이란 당대부터 발생해 당말오대 시기에 성행했던 운문과 산문이 섞여 있는 구어체의 문장으로 '강창류'의 문학 형식에 포함된다. 변문의 발생과 기원, 용도에 관해서 매우 많은 견해가 존재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구연'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구연'은 대중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때 속강승(俗講僧)이라 불리는 승려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 경전을 낭독하며 불법의 전수와 포교활동을 하였다. 점차 대중성이 강조되면서 당시 일반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 중국 전통의 '효'사상과 이미 우란분회라는 불교행사로 널리 알려진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는 이야기는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었을 것이다.

20세기 초 돈황의 장경동에서 많은 필사본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 '변(變)' 혹은 '변문(變文)'이라 기록된 문건은 9종류로서, 특히 목련고사 관련 변문이 아홉 점이나 포함되어 있어 목련변문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목련구모와 관련된 아홉 건의 변문은 앞서 살펴본 〈우란분경〉의 내용보다 목련의 가정환경과 지옥이야기가 훨씬 구체화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첨가된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옥에 간 어머니 구한 목련존자
〈목련경〉〈목련구모경〉 전해지나
〈우란분경〉 모본해 개작된 '변문'

속강승 통해 구연되며 내용 전해
당시 불교 포교·대중화에 큰 역할
韓中日 변문 바탕 변상판화 조성

출가하기 전에 목련의 이름은 나복(羅卜)이었고 불심이 깊었으며, 타국과의 무역을 위해 가산을 나누어 어머니께 맡긴 뒤 승려에 대한 시주와 어려운 사람 구제에 힘쓸 것을 부탁하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천생이 욕심 많고 잔인하여 나쁜 일을 많이 행하였기에 목숨을 잃고 아비지옥에 떨어져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한편 출가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목련이 신통력으로 명간을 살펴보니 어머니가 지옥에 있어, 어머니를 찾아 아비지옥, 소흑암지옥, 아귀도 등 여러 지옥을 순례하였다, 이후 어머니가 개로 환생하자 부처의 가르침을 얻어 여러 승려들이 협력하여 주문을 외우면 풀려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란분회를 열어 어머니가 도리천에 이를 수 있었다.



중국 감숙성 유림19굴 '목련변문변상도'의 모습. 10세기 중반에 조성됐다. 유통되던 목련변문을 도상화 한 것이다.



일본 곤고우지 소장 〈목련경판본〉의 모습. 변상도와 함께 경문이 확인된다.

〈우란분경〉과 〈목련변문〉과의 공통점은 목련의 효행으로 패악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던 어머니를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유교의 효사상과 불교의 윤회사상이 결합된 〈우란분경〉은 중국의 민간문학인 〈목련변문〉으로 변화되면서, 민간으로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다. 즉 당시에 변문이 불경과 같은 교화와 대중포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실과 지배층에서 '효'를 선호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유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1536년에 제작된 전라도 소요산 연기사본(烟起寺本) '목련경판화'를 포함해 10여 종 이상의 목련구모 관련 판본이 알려져 있으며, 일본은 교토 곤고우지(金光寺)소장의 '목련경판화'가 원 1251년에 제작된 판본을 일본에서 1346년에 재판각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유통되고 제작된 다양한 '목련경판화'의 기원에 관해 살펴보면, 내용이 〈우란분경〉보다는 확실히 〈목련변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황에서 발견된 아홉 종류의 〈목련변문〉들 중에서 각각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921년에 제작된 S.2614 〈대목건련명간구모변문병도일권병서(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竝圖一卷竝序)〉의 내용이 현존 한국과 일본의 목련경판화와 가장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 S.2614 목련변문의 내용이 한국과 일본에 전달이 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판화를 볼 때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표현방식대로 목련구모의 고사를 표현하였다고 본다.

목련경은 불교경전인 〈우란분경〉을 모본으로 하여, 당시에 유행하던 불교의 윤회사상과 지옥이야기 그리고 유교의 '효사상'을 첨가하여, 세속적인 문학의 형태로 변형시킨 〈목련변문〉에 도상학적 기원을 두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돈황 장경동에서 출토된 목련구모와 관련된 변문 중에서 영국 대영박물관 소장의 S.2614 〈대목건련명간구모변문병도일권병서〉의 내용이 가장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 전 〈현대불교신문사〉의 지난 2월 10일자 "불교극 계승한 '송광사 연희대본' 발굴"의 기사를 읽으며, 당대 8세기의 민간문학과 공연이 불교를 통해서 면면히 이어져 송광사 연희대본 '목련극각색'으로 20세기 초까지 현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어떻게 변문과 변사를 활용하여 민간에 적극적으로 불교를 전파하고 교리를 쉽게 전달할 생각을 했을까? 21세기의 교육방송보다 시대를 앞서가는 불교의 활용성은 정말 놀랍다. 미술을 통해서 본 불교는 가장 포용력 있는 종교이며, 가장 생명력이 강하고, 인공지능 컴퓨터 보다 월등히 똑똑하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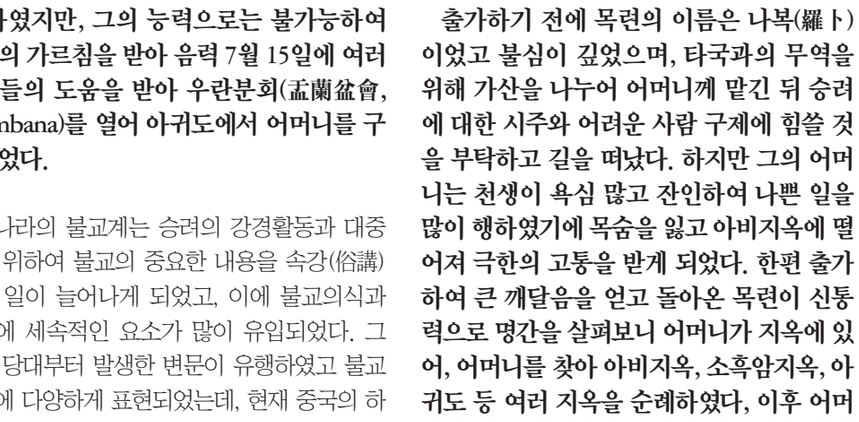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염불을 빼어나게 잘하고 싶은 분은!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소리 명인의 작품, 본사의 견본으로 귀 법당서 비교 염불시 내 염불의 테크닉이 형!형!하게 살아서 내 영혼에 그윽히 맑은 가락으로 울려올 때 듣는 불자도 그러한즉 보물이 따로 없음으로 귀 법당 시설의 절반가에 시설상담

다시 말씀드림 : 본사의 염불전문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실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본품은 본사의 염불전문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장점 : (1) 앰프다루기 1초! (2) 고장 없음을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시설명단 제공에서 확인!
(3)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이 편안하다는 수 많은 염불 스님들의 평가
(4) 방문자는 소리의 명인으로 소리의 교정 발전 및 전화상담 환영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지방자치로 불교민주주의 실현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⑦ 지방자치와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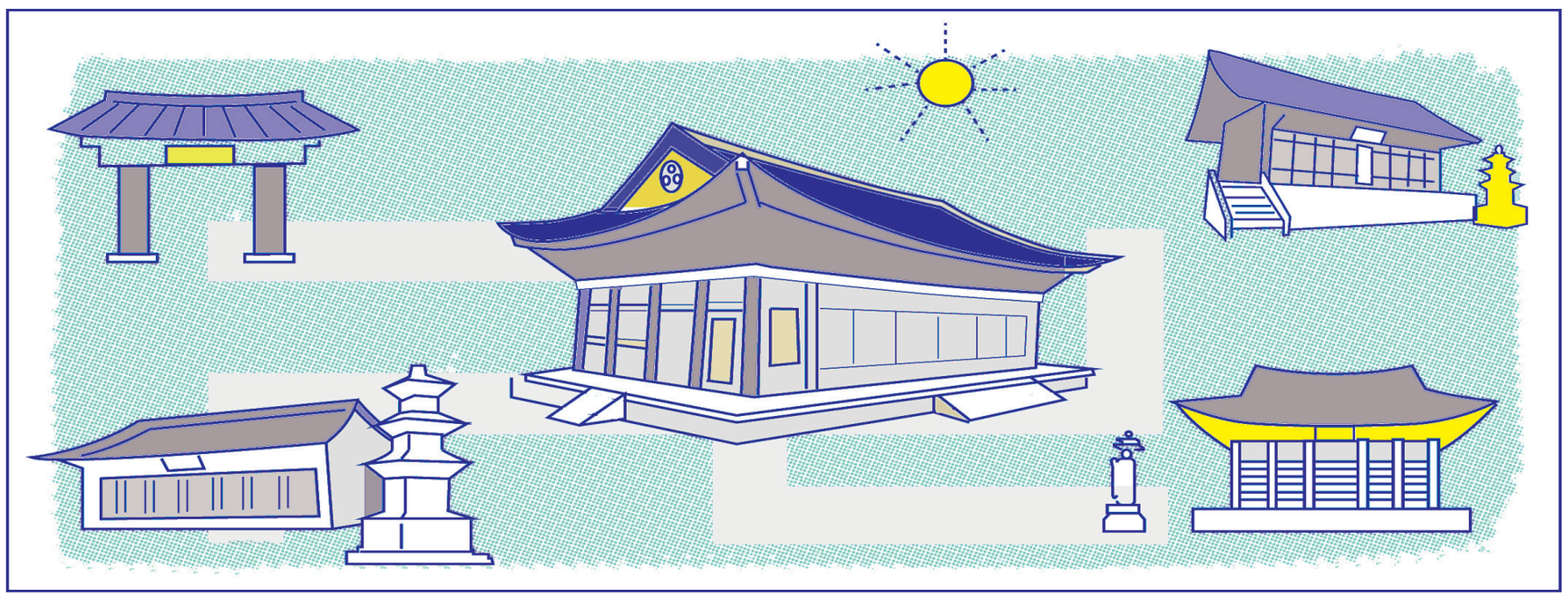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서부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하이눈' 은 게리 쿠퍼와 그레이스 켈리 주연의 명화다. 게리 쿠퍼는 보안관이고 그레이스 켈리는 보안관과 갓 결혼한 아내다. 게리 쿠퍼는 신혼 생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던 차에 자신이 체포하여 징역을 살았던 악당이 부하와 함께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미 보안관 사표를 냈기 때문에 아내는 관여하지 말고 떠나자고 하지만 어차피 악당들이 다른 곳으로 와서 복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남아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치안 판사, 보안관 조수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마저 돕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이 싸운다고 고집을 부리자 떠나 버린다. 홀로 악당들을 상대하던 보안관 게리 쿠퍼는 부상을 당하지만 다시 돌아온 아내에 의해 위기를 모면한다. 마침내 악당들을 모두 소탕한 뒤에 마을 사람들 앞에 보안관 배지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아내와 함께 마을을 떠난다.

미국은 서부를 개척하던 시절에 마을이 만들어지면 학교를 세우고 보안관을 임명하여 치안을 담당케했다. 아무리 작은 마을도 주민에 의해 보안관이 임명되어 경찰의 역할을 하였다. 아무리 작은 마을도 학교가 있었으며 학교는 마을 주민에 의해 운영되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교육과 경찰 서비스라는 공식은 바로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도 적용되던 공식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는 아직도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지만 과거의 중앙집권보다는 분명 좋은 점이 더 많다. 만약 지방의 수준이 너무 낮아 도저히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선진국이 고민해왔던 문제였다. 그러나 영국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다. 즉 지방의 수준이 낮더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지방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논리이다.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중앙집권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중 일부는 지방자치가 문제가 있으니 과거의 중앙집권체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수록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지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경우 교육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등 부분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도 교육자치가 완전히 시행되었다고 보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치안은 어떨까? 지방자치의 핵심은 교육과 경찰서비스이다. 교육과 달리 경찰은 지방자치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자주 나온 제도개혁이 자치경찰제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 비대한 경찰 조직에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치경찰에 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을 위해선 현재 경찰청의 일부 인력과 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중앙정부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는 경찰조직이 바로 자치경찰이다.

경찰이 하는 업무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는 경찰이라고 하면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보건 위생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 업무도 있으며 교통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 부서도 있다. 경찰 업무를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교통관련 업무가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넘겨야 하는 업무는 교통경찰의 업무이다.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업무,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를 단속하는 업무도 성격상 주민과 밀착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이므로 지방으로 이관되는게 맞다. 따라서 교통,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업무는 지방에 이관하여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이 정치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정치 학교이기 때문이다. 주민이 직접 보안관을 뽑고 교사를 초빙했던 서부개척 시대를 상상해보자. 이웃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투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실이나 다름없다. 정치선진국은 예외없이 지방자치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다. 정치인도 지방에서 성장하여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정치인 양성 통로가 구축되어 있다.

지방에 자율을 부여하는 정도가 매우 강하면 연방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각 주가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주의 법률로 주를 통치한다. 주는 경찰은 물론이고 방위군이라는 군대까지 갖추고 있다. 우리는 연방국가라고 하면 미국처럼 규모가 큰 국가만이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스위스도 연방국가이다. 스위스는 칸톤이라고 하는 지역단위가 모여 연방국가를 구성한다. 거의 독립국가로 작동했던 과거의 칸톤에 비하면 오늘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졌지만 여전히 칸톤은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고 있다.

불교는 부처님이 정한 규율 내에서 개별 사찰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주요 의사결정은 사찰의 회의인 갈마(羯磨)에서 이루어졌다. 갈마를 주제하는 출가자는 갈마사라고 불리웠다. 아무나 갈마사가 될 수 없었기에 갈마사의 자격은 제

국민 정치 학교 '자치'
자율 · 자유 · 민주 가르쳐
불교 갈마 제도와 닮아

한되었다. 갈마사는 승가에서 대중이 전원합의에 의해 뽑았다. 작은 규모의 사찰은 자율이 부여되는 범위가 좁았지만 규모가 커질 수록 부여되는 자율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작은 사찰은 구족계를 줄 수가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은 구족계를 줄 수가 있다. 구족계를 줄 때는 사찰의 갈마에서 대중의 의견을 물어야했기에 개별 사찰이 결정하는 사안이었지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교단 운영은 매우 중앙집권적인 가톨릭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자율성이 두드러진다. 불교 민주주의는 자치 민주주의다.

개별 사찰에 자치권이 부여되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개별 사찰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부합하는 사찰운영이 가능하다. 사찰의 여러 소임을 맡는 출가자가 대중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중의 의견을 갈마에서 제시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중앙에서 사찰운영의 여러 직책을 담당할 출가자를 임명하면 대중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수 있다. 중앙에서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대중은 불만이 있어도 따를 수밖에 없다. 개별 사찰에서 담당자를 선발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대중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할 우려가 크다. 중앙에서 임명하면 중앙의 눈치만 보게 된다. 중앙은 개별 사찰에 있는 모든 출가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적임자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찰에 자치권이 주어지면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는 사찰공동체에선 출가자 개인에 대한 장단점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영화 '하이눈' 에서 보안관을 맡은 게리 쿠퍼는 매우 드문 경찰이다. 그런 훌륭한 경찰이 임명되면 주민은 가능하면 그를 계속 보안관으로 잡아두려고 할 것이다. 만약 형편 없는 경찰이 임명되면 주민은 가능하면 하루 빨리 그를 퇴출시키려 할 것이다.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는 설사 형편 없는 경찰이 임명 된다고 해도 주민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다시 인사 이동이 있어서 그가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랄 뿐이다.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임명된 경찰은 주민을 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을 임명한 중앙의 눈치만 보고 개인의 이익만을 챙겨도 주민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영화 '밀양' 을 보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 전도연에게 아이가 유괴되어 사망하는 불행이 닥친다. 만약 밀양 자치경찰책임자가 수사를 부당하게 진행하여 전도연이 이에 대해 항의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자치경찰권이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되면 밀양 자치경찰책임자는 밀양군수에 의해 임명된다. 이럴 경우 전도연이 온 밀양을 쏘다니면서 낙선운동을 할 경우 밀양군수는 매우 놀라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자치경찰책임자에게 지시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전도연이 밀양경찰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온 대한민국을 쏘다니면서 대통령 낙선운동을 할 수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부처님은 연기를 알면 법을 알고 법을 알면 연기를 안다고 말씀하셨다. 자치는 과연 연기법에 부합할까? 연기법에 의하면 밀양군의 모든 현상과 사물은 수많은 인과 연이 연기하여 임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중앙집권제도는 중앙에서 밀양군의 모든 현상과 사물에 관련된 수많은 인과 연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구축된 제도이다. 오늘날 세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변화무쌍해지면서 수많은 인과 연을 중앙에서 파악하고 즉시 이에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수많은 대처를 오직 중앙 한군데서 하는 방법보다, 수많은 대처를 각각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뛰어나다. 지방자치는 바로 이러한 각자 대처 방법이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오직 모를 뿐이다. 밀양군이 대처하는 방법이 인과 연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를 상상해보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면 신속 대응이 가능하나 중앙집권 하에서는 신속 대응이 불가능하다. 자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연기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공하니 지방자치에 집착하여 절대 절명의 가치인양 붙들고 있는 것도 어리석다. 때로는 중앙집권적 방법이 더 적절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불교민주주의의 핵심 성격은 자치 민주주의이지만 자치에 집착하지도 집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자치에 근간을 둘지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중앙집권적 해결방법도 도입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불교교단을 운영해야 연기법에 부합하는 불교의 지혜다.

〈고려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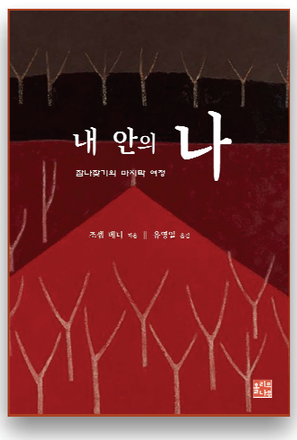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옥천범음대학
불교의식 특별반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모집인원 : 30명
▣ 전형일자 : 모집중
▣ 수 업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4시
▣ 지도교수 : 조현성 스님
▣ 교육과정 : - 도량석·종송·향수해례·삼보통청·사시불공·중단퇴공·각단불교의식·상용영반·식당작법 등
- 각종행사 불공의식
- 불상점안·사다라니작법
- 예수재작법
- 사물 및 불교무용(바라, 나비춤, 법고무 등) 심화교육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온 영성계의 클래식.
개체성을 넘어서자마자 참자아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내 안의 나
참나찾기의 마지막 여정

삶의 진실찾기 게임에 몰두하던 저자는 어느 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받아적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은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거룩한 존재'의 비밀을 열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풍요의 삶을 위한 생각활용법까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 조셉 베너 / 유영일 옮김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세상 전체를 떠받드는 거룩한 사랑의 큰 손이
내 숨결보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느껴진다. —아마존 독자 서평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내 실존의 중심에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잘것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이 구족되는 활활발발한 인생은 곧잘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물질 위주의 의식 찌꺼기들은 어찌하여야 깨끗이 청소될 수 있을까? 나의 참된 주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

올리브나무 010-7755-2261, 070-8274-1226
직접 주문 02) 2004-8253 010) 7755-2261
* 교보,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등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생과 함께”… 진정한 수행자의 길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⑦ 禪者의 보살행

당나라 때에 다양한 종파가 형성되었는데, 선종(禪宗)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대체로 선종은 오롯이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사들은 중생을 향해 보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층이라는 말인가? 답을 직언하면, 그렇지는 않다. 어록에서 선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다.

기원전 1세기 전후, 수행과 실천의 병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대승불교는 ‘어떻게 보살의 길을 지향하느냐’를 고민하며, 참 종교로 거듭났다. 초기불교에서 석존에게 국한했던 보살이란 용어가 대승불교로 오면서 ‘자리이타’ 실천을 지향하는 일반 수행자 호칭으로 변모되었다. 곧 대승의 보살은 재가자든 출가자든 구별 없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하도록 이타를 실천하는 수행자이다. 보살의 대표적인 보살행이 육바라밀이고, 이타의 구체적인 행이 서원 · 행원 · 발원 · 회향 사상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에서 최초로 선사상이 정립될 때, 선사들이 대승경전을 토대로 하였다. 어록이 나오기 이전까지. 이를 감안해 대승불교 경전에 언급된 대승적 의미의 중생구제를 보자.

〈반야경〉에서 보살의 두 가지 공능을 설할 때, 반드시 ‘불착(不着)’과 ‘수순(隨順)’을 들고 있다. 그런데 대승의 보살에게 불착보다 수순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불착이란 견성성불(見性成佛)을 말함이요, 또한 수순이란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중생세계로 돌아와 중생의 뜻에 따르는 요익중생(饒益衆生)을 말한다. 이는 보살이 지혜와 자비를 함께 운용하되(悲智雙運) 자비 실천을 지혜의 발현보다 우선함을 의미한다.

육바라밀도 보시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사홍서원에도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타사상이 먼저 등장한다. 〈열반경〉에 “나의 성불을 뒤로 미루고, 남을 먼저 제도한다”라고 하며, 〈화엄경〉에도 “중생제도를 먼저하고, 나의 성불을 뒤로 미룬다(先度衆生後成佛)”고 하였다. 또 〈유마경〉에서는 “선미(禪味)에 탐착해 있는 것은 보살의 속박이요,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보살의 진정한 해탈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뒤 해탈의 기쁨을 누리며 열반을 선택하지 않고 중생의 권익을 선택했던 것(범천의 권청을 받아들임)처럼, 〈유마경〉에서 보살의 진정한 해탈은 바로 자리적(自利的) 선열(禪悅)이 아니라 중생교화를 우선하는 것이 진정한 선자라고 정의한다. 보살 사상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만일 일체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간다. 만일 중생이 병을 여의면, 보살도 병이 없어진다.”

“보살이 깨끗하지 못한 국토에 태어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어둠과는 더불어 섞이지 않나니, 다만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 청정치 못한 국토에 태어나는 것이다.”



중국 사천성 시방현 나한사의 포대화상상. 당나라 말기 선사 계차를 모델로 했다. 초기 십우도의 마지막 도상인 ‘입전수수’에 나타나기도 했다.

곧 보살이 깨달았을지라도 중생의 해탈을 위해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동체대비의 염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승불교에 와서는 해탈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집착 없이 대비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여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라고 한다.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선종에서 무심(無心 · 無住心) 사상을 내세웠는데, 이는 깨달음을 향한 실천적 과정이면서 목적지이다.

그러면 선수행자의 자비사상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실은 선자의 자비가 강조된 것은 송나라로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선자의 자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가 십우도이다. 십우도는 선의 구도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목우도와 함께 여러 종류의 십우도가 등장했다. 십우도 가운데 대표가 곽암 선사의 그림과 게송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곽암의 십우도가 발전되었고, 우리나라 법당 벽화에도 이 십우도가 가장 많이 그려져 있다. 곽암은 임제종 양기파 승려이고, 법명은 사원(師遠)이며, 대수 원정(大隨元靜, 1065~1135)의 법맥을 받았다.

십우도는 자신의 마음(번뇌)을 소(牛)에 비유하여 번뇌를 조복 받고 길들여(牧牛),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騎牛歸家), 결국 소도 잊고, 자신도 모두 잊어버리는(忘牛存人) 과정을 지나 해탈의 경지에 이른 다음 다시 중생세계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열 가지로 묘사해 놓은 그림이다.

> 불착 · 수순, 보살이 가진 공능
> 자비행을 지혜보다 우선 의미
> 禪수행의 과정 그려낸 십우도
> 10번째 ‘입전수수’ 교화 강조
> 이는 계차 선사 롤모델로 해

아홉 번째가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인 반본환원(返本還源)이다. 여여부동(如如不動)한 제법실상(諸法實相) 그대로의 경지인 본 자리로 돌아온 것을 말한다. 다음 열 번째가 이 원고의 주제인 입전수수(入纏垂手)이다. 마지막 그림인 입전수수는 포대화상과 동자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다. 후대에는 행각승이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깨달은 뒤에 혼자 깊은 적정세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속으로 들어가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의미다. 이 사상은 대승경전에 언급된 사섭법(四攝法) 가운데 하나인 동사섭(同事攝)과 유사하다. 곽암은 입전수수 서문에서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표주박을 들고 저자에 들어가며, 지팡이를 잡고 집으로 돌아간다. 술집도 가고, 고깃간도 들어가서 교화를 펼쳐 성불케 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술집이나 고깃집이라는 장소이다. 승려가 계율 상 금기할 곳이 술집과 고깃간이다. 하지만 이곳도 중생이 사는 장소이다. 나쁜 업을 지은 지옥 중생도 보살이 구제해야 할 대상이다. 왕족이라고 구제받을 귀한 존재이고, 교도소의 수인이라고 천대해 구제하지 말라는 논리가 아니다. 중생을 섭수(攝授)코자 한다면 어느 곳, 어떤 장소를 분별하지 않고, 가야한다. 곧 수행자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 상대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무심(無心)히 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십우도의 입전수수를 기점으로 어록에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벽암록〉에도 ‘손을 드리우다(垂手)’는 단어가 있다. 스승이 제자나 신자를 이끌기 위한 자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입전수수 동의어로 쓰이는 유명한 문구가 ‘화광동진(和光同塵, 중생과 함께 함)’이다. ‘화광’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인격적 품성이나 재능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음이요, ‘동진’이란 오염된 티끌 세상에 들어가 그들과 동화되어 함께하는 것이다.

화광동진의 유사한 언어로는 ‘회두토면(灰頭土面)’이다. 회두토면은 ‘머리에 재를 쓰고 안면에 흙을 칠했다’는 뜻이다. 수행을 성취한 후에 되돌려서 대비심을 내어 중생 속으로 들어가 중생을 구제한다. 회두토면은 곧 중생과의 인연에 따라 그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화현하는 것이다. 〈벽암록〉에서는 세간이든 청정 도량이든 본성을 깨닫는 데는 차별이 없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선사가 중생과 더불어 함께한다는 의미로 회두토면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송나라 보제가 지은 〈오등회원〉 권20에서는 ‘회두토면 대수타(니帶水拖泥)’라고 하여 회두토면과 나란히 대수타니를 언급하고 있다. 〈십우도송〉 저자 곽암은 열 번째 입전수수를 설명한 게송에서 ‘말토도회(抹土塗灰)’라고 언급하였다. 곧 “재투성이 흙투성이(얼굴)”이라는 뜻인데, 앞의 대수타니와 동일한 의미다. 이 대수타니와 유사한 단어로 ‘입니입수(入泥入水)’라는 단어도 함께 쓰인다. 진흙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중생세계로 들어가 함께 함을 말한다. 〈서장〉에서 대혜 종고(1089~1163)가 장시랑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전한다.

“그대가 스스로 얻은 해탈의 경지를 법칙으로 삼아 겨우 이치의 길에 들어서 진흙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 자비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을 보고, 곧 쓸어 없애고자 하며 종적을 소멸하게 합니다.”

한편 송대의 운문종 선사 자각 종색은 〈좌선의〉 서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무릇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마땅히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세우고, 정교하게 삼매를 닦되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요, 자기 한 몸만을 위해 홀로 해탈을 구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본대로 화광동진 · 회두토면 · 말토도회 · 대수타니 · 입니입수 등 다양한 보살행 문구가 선어록에 제시되어 있음을 정리해볼 수 있다. 해인사 성철 스님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스님께서 오롯이 수행자의 면목을 보인 것, 그 자체로서 승려들이나 중생들에게 수행자의 정석을 보였으니, 큰 자비를 베푼 셈이다.

입전수수에 대한 화송(和頌) 마지막에 “미륵의 누각문이 활짝 열어진다”고 하였다. 곧 입전수수의 롤 모델로 포대화상을 염두에 두었는데, 곽암의 십우도에는 행각승(목동)이 포대화상과 마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포대화상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미륵부처’라고 한다. 포대화상은 뚱뚱한 몸집에 큰 배를 내밀고, 늘 웃음을 띠고 있으며, 등에 포대를 짊어지고 있는데 중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계차는 늘 길에서 생활하고, 길에서 잠을 청했으며, 중생들과 저자거리에서 함께 했던 보살이다. 이 포대화상은 당나라 말기, 절강성(浙江省) 봉화현(奉化縣)의 승려 계차(契此, ?~917)이다. 계차의 고향인 봉화현은 중국 미륵불교의 발상지이다. 계차 입멸 후 중국인들은 그를 미륵의 화신으로 받들어 희망의 아이콘으로 섬기고 있다.

근자, 코로나19 전염증으로 전 세계가 뒤숭숭하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이들이 다 그렇지만, 스님들도 경제적으로 곤핍한 처지이다. 그런데도 중생을 향해 팔을 벌려 달려가는 스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나라가 곤란하고 중생이 힘들 때, 불교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았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고려 색채 담아낸 찻그릇 개발



박동춘의
고려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⑦ 중국 영향 벗어난 고려

고려시대 비색 청자 다완(茶碗, 찻사발)은 찻그릇의 예술미와 실용성을 두루 갖춘 일품의 차 도구이다. 맑고 은은한 비색 사발이 주는 안정감은 맑고 따뜻한 차의 색, 향, 미를 담아내기에 족하다. 그러므로 간극의 예술미를 갖춘 청자 다구의 완성이란 바로 고려인의 차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 그 시대의 문화적 성숙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찻그릇은 그 시대 차 문화의 품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셈이다. 이런 관심으로 고려시대 다구를 살펴보면, 청자 찻그릇의 형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차를 즐긴 고려인의 취향과 실용성이 담론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다구(茶具, 점다할 때 사용하는 차 도구)의 쓰임새를 주목해 가는 과정에서 고려인의 실용성이나 응용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긍(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은 이런 문제를 풀어 줄 중요한 문헌이다. 그가 기록한 12세기 고려인이 사용했던 다구로는 탕호(湯壺)와 은로탕정(銀爐湯鼎), 비색 다완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도경〉 '기명(器皿)', '다조(茶俎)'에서 드러난다. 〈고려도경〉에 언급된 탕호의 모양과 쓰임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탕호의 모양은 마치 꽃병과 같은데, 조금 납작하다. 위에 뚜껑이 있고 아래에는 승반이 있어 따뜻한 기운이 식지 않도록 했는데, 또한 옛날 온기(溫器)에 속한다. 고려인은 차를 끓일 때, 흔히 이 탕호를 사용한다. 전체 높이는 1척 8촌이고 지름은 1척이며, 용량은 2말이다. (湯壺之形 如花壺而差扁 上蓋下座 不使泄氣 亦古溫器之屬也 麗人烹茶多設此 通高一尺八寸 腹徑一尺 量容二斗)

윗글은 '기명'의 일부 내용으로, 탕호는 뜨거운 물을 담는 용구이며 용량은 2말이었음이 드러난다. 당시 고려인은 가루차를 선호했다. 그러므로 탕호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이동했을 것이며, 탕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기 위해 승반(承盤)을 사용했다. 이는 가루차를 격불(擊拂, 다선으로 차를 휘저어 거품을 만듦)할 때,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다화(茶花)가 곱게 섬세하게 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탕호를 이용하여 뜨겁게 끓인 물을 이동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승반(承盤)은 호(壺, 주자(注子), 혹은 주전자)에 들어 있는 물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담아두는 용기이다. 주자(注子, 주전자)의 받침에 해당된다. 그리고 서긍은 탕호를 설명하면서 "옛날 온기(溫器)에 속한다"고 하였다. 온기(溫器)는 그릇 속에 들어 있는 물질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릇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청주 주자와 승반(받침).

승반이 있는 탕호는 온주(溫酒, 따뜻하게 먹는 술)를 담는 용기나 혹은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탕류(湯類)를 담았던 그릇이다. 그런데 12세기 고려인들은 차를 끓일 때 탕호를 사용했다는 것이 서긍의 증언이다. 탕호를 다구(茶具)로 응용했던 고려인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송나라에서는 탕호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인의 개방적이고도 활달한 응용력이 돋보이는 탕호의 쓰임새다.

한편 탕호의 모양이 꽃병보다 낮고 퍼진 납작한 형태였고, 뚜껑과 승반이 있었다는 사실도 서긍을 통해 밝혀진 것인데, 현재 고려시대 유물 중에 승반이 있는 탕호는 술주자(注子)와 차 주자(注子)로 썼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것이 술주자이며 어떤 형태가 차 주자인지는 분명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차후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개진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고려시대 다구에 관한 기록은 '기명'의 '다조(茶俎)'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좋아하여 도구를 잘 만든다. 금화오잔, 비색 작은 다완, 은로탕정은 모두 중국 것을 모방해 만든 것이다. 무릇 연회를 열면 뜰 중앙에서 차를 끓여 은하로 덮어 천천히 걸어와서 내려놓는다.(邇來頗喜飮茶 益治茶具 金花烏盞翡色小甌銀爐湯鼎 竊效中國制度 凡宴則 烹於庭中 覆以銀荷徐步而進)

윗글에 따르면 12세기 고려에서는 송나라의 다구를 모방하여 찻그릇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12세기 고려에서 생산하는 차와 다구들은 이미 중국 찻그릇의 모방하던 과정을 벗어나 고려색채를 띤 차 문화를 형성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다구의 형태에 있어서도 고려인의 기호와 안목, 풍토성을 함의한 찻그릇이 생산되어, 독특한 찻그릇을 완성했다. 특히 비색 청자의 맑고 은근함은 고려 색을 담아낸 그릇으로서 맑고 은근한 차의 품성을 담아내 비색과 어우러진 담백하고 생기 있는 고려 차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찻그릇이다.



보스턴박물관이 소장한 은제 주자와 승반.

찻물 온도 지켜내기 고민해
탕호를 다구로 활용하는 등
고려인 취향 · 실용성 반영
中문화 모방 점차 줄어들어

그뿐 아니라 고려에서는 북송에서 유행했던 흑유잔도 생산되었는데, 백차의 구름 같은 차의 아름다운 색조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효과를 준 그릇이 바로 금화오잔이다. 오잔(烏盞)은 검은색 찻잔으로 백차를 선호했던 시기에 유행했던 찻그릇이다. 그런데 금호오잔엔 검은 발색의 찻그릇에 찬란하게 빛나는 꽃이 그려진 찻잔, 이는 송대의 토호다잔(兎毫茶盞)이 넘볼 수 없는 예술미를 드러낸 찻그릇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인의 상상력과 이상은 찻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려인의 당당함은 사신을 위한 연회에서 고려에서 만든 차를 대접했다는 대목에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에서 생산하는 차의 맛은 쓰고 떫어서 입에 댈 수가 없다. 오직 중국의 납차나 황실에서 보낸 용봉단차를 귀하게 여긴다. 중국 황실에서 선물로 보낸 차 이외에 상인들도 판다… 중략 … (연회에서)시중드는 사람이 말하기를 '차를 다 돌렸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야 차를 마실 수 있었으니 식은 차를 마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관사 안에는 붉은 찻상에 다구를 진열한 다음 붉은 비단으로 만든 상보로 덮는다. 매일 세 차례씩 차를 맛보는데, 이어 탕을 낸다. 고려인은 탕을 약이라고 하는데, 사신들이 탕을 다 마시면 반드시 기뻐하였고 혹 다 마시지 않으면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여 불쾌히 여겨 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억지로 마셨다.(土產茶味苦澁不可入口 惟貴中國臘茶幷龍鳳賜團 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 中略… 候贊者云茶遍乃得飮 未嘗不飮冷茶矣 館中以紅俎布列茶具於其中 以紅紗巾冪之 日嘗三供茶而繼之以湯 麗人謂湯爲藥 每見使人飮盡必喜 或不能盡以爲慢己 必怏怏而去 故 常勉强爲之啜也)

윗글은 고려시대 차 문화와 관련하여 서긍의 경험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보고 느낀 고려 차의 맛이 쓰고 떫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말한 점이다. 그가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간 시기는 선화 5년(1123)으로, 고려 인종 때이다. 당시 고려의 차 문화는 가장 난만한 문화를 형성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생산한 뇌원차의 품격은 송에서 생산한 단차와도 견줄 수 있는 차였는데, 이는 이규보의 〈시후관에서 쉬면서(憩施厚館)〉에 "차를 다려 맛보니(試嘗一甌銘) 맑고 시원한 차 거품이 내 목으로 넘어가네(氷雪入我喉)"에서도 그 품격이 확인된다.

그런데도 서긍은 무슨 연유로 고려에서 생산된 차가 쓰고 떫어서 입에 댈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일까. 그 답은 이렇다. 바로 그가 "식은 차를 마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다. 당시 고려도 백차를 선호하여 단차류인 가루차를 마셨다. 단차의 음다법은 다완에 가루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격불하여 다화(茶花, 차 거품)를 피워내는 점다(點茶)였다.

그런데 서긍이 말한 것처럼 식은 차를 마셨다는 것인데, 식은 차의 맛은 쓰고 떫어진다. 이는 바로 차의 탄닌 성분이 공기와 접합하면 쓰고 떫은맛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긍이 고려에서 만든 차를 입에 댈 수 없었던 연유는 의례절차 때문에 그가 차를 마신 시점에는 이미 차가 식었을 것이다. 그러니 차가 쓰고 떫어서 차를 입에 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는 뜨거운 상태에서 차를 마셔야 그 효과가 증대되는 것인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특히 윗글에서 주목할 대목은 고려의 탕법의 특징이다. 왕실에서는 사신을 위해 하루 세 차례 차를 올렸고 이어 탕을 낸다고 한 점이다. 그리고 고려인은 탕을 약이라 말했다는 것인데, 이는 식은 차의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 뜨거운 탕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려인은 식은 차를 마실 경우를 대비하여 차의 효능을 극대화할 방법으로 뜨거운 탕을 마시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또한 고려인의 차에 대한 응용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탕은 무엇일까. 끓인 물인가, 아니면 뜨겁게 차를 우린 것일까.

이에 문제를 해결할 문헌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12세기에 북송에서는 산차(散茶, 잎차)를 만들었으니 당시 고려에서도 산차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뜨겁게 우린 차를 탕이라 하고 약이라 말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은 고려 시대뿐 아니라 현대의 풍속에서도 남아 있는 모습이다. 현대의 생활 풍속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90대까지만 해도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정서는 여전하였다. 그러므로 서긍이 서술한 고려인의 습성은 현재까지도 실존하는 풍습이란 점에서 민족성이란 그 산하와 풍토 위에서 그 특징적 함수관계를 축적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마음 없어지면 어디서나 해탈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⑬ 임제선의 돈오돈수

"여러분, 마음의 법칙은 형상이 없으면서도 온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눈으로는 본다 하고, 귀로는 듣는다 하며, 코로는 냄새를 맡는다 하며, 입으로는 말한다 하며, 손으로는 잡는다 하며 발로서는 걷는다 한다.

본래 하나의 정명(精明, 마음)이 나뉘어 여섯 가지 화합이 되었으니 한마음이 없어지면 어디서나 해탈이다.

산승이 이렇게 말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도를 닦는 사람들이 밖으로 치달리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날 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용(機用)과 경계에 끌려가 놀아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산승의 견해를 가지고 말한다면 보신불, 화신불의 머리를 깔아뭉개버려야 한다. 십지의 수행을 채운 보살도 아직 빌어먹는 거지와 같고 등각, 묘각도 목에 형틀 걸치고 발에 족쇄를 찬 죄인에 불과하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 같고, 깨달음이라느니 열반이라느니 하는 것도 나귀를 매어 두는 말뚝이다. 어째서 그런가? 도를 닦는 이들이 삼아승지 겁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진정한 도인이라면 이렇지는 않다. 다만 인연을 따라 묵은 업장을 없애며, 형편대로 옷 입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을 뿐 한 생각도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무슨 인연으로 그러한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만약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에 윤회하는 큰 조짐이라 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어지면 어디서나 해탈이다.' 이 말은 외부의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경계에 끌려가면 마음속에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생긴다. 그러면 본래의 공적지심(空寂之心)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임제의 법문은 이 대목에 와서 매우 강렬해진다. 도를 닦는 수행자가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을 타파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설해지고 있다. 먼저 마음이 시방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 말은 마음이 시공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마음이 툭 터지지 못해 경계를 의식하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해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보신불이니 화신불이니 하는 부처에 사로잡혀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보살 십지(十地)나 등각(等覺), 묘각(妙覺)의 지위도 부질없는 것이고, 나한이나 벽지불도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말은 점교(漸敎)나 점수(漸修)의 수행방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제의 근본 종지(宗旨)인 돈오돈수(頓悟頓修)의 대의가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다. 임제선의 특징이 바로 돈오돈수다.

선수행에 있어서 종지를 세워 실참(實參)을 할 때 대표적인 두 가지가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다. 규봉종밀(圭峰宗密 · 780~841)의 〈도서(都序)〉에는 돈점(頓漸)의 문제를 7가지 유형으로 설명, 7대 돈점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돈오돈수와 돈오점수가 돈점의 문제를 대표한다. 돈오란 단번에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이는 '한 번 뛰어서 바로 여래의 지위에 들어간다(一超直入如來地)' 는 말과 같이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취지를 나타내는 말로 중국 선종 특히 남종선의 특색을 이루며 일반화된 말이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포착하여 시간적인 과정을 빼고 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육조단경〉에 혜능이 직접 말하기를 "홍인 화상의 문하에서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아 진여의 본성을 단번에 보았다"는 말이 나온다. 또 실제적인 참된 수행이 돈오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은 무명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迷心修道 但助無明)"고 하였다. 그리하여 단번에 깨닫고(頓悟)부터 점점 닦아(漸修)나간다는 말이 일반적인 말처럼 쓰이다가 돈오의 순간에 점수가 함께 완성된다는 돈오돈수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근기가 뛰어난 상상지(上上智)의 사람의 경우라고 규봉은 설명했다.

마지막 대목에 와서 하는 말은 진정한 도인은 자기 업(業)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과(佛果)를 구하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업(業)을 지어 부처가 되려는 것은 부처가 바로 생사윤회의 큰 조짐이다"는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조계종 고시원장〉

일상삼매는 慧, 일행삼매는 定



세상 속 경전읽기

⑬ 일상(一相)삼매와 일행(一行)삼매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은 약어로 〈문수설마하반야경〉이라고도 부르며, 양(梁)나라 때 부남국[扶南國, 지금의 캄보디아]의 삼장 만다라선(曼陀羅仙)이 CE 503년에 한역(漢譯)하였다.

이 경은 차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반야바라밀과, 우주의 근원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행삼매(一行三昧)를 설한 경이다. 상권에서는 무상(無相)의 반야바라밀다에 대해 설하면서 관불(觀佛)을 강조하고, 하권에서는 무상의 일행삼매를 염불(念佛)삼매와 관련하여 설한다.

당(唐)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경(大般若經)〉 600권은 반야부 경전의 약 3/4을 차지하는 방대한 경으로, 전체가 16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7회는 만수실리분(曼殊室利分)으로 제574~575권이며, 차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반야바라밀과 우주의 근원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행삼매(一行三昧)를 설한 것이다.

일행삼매는 중국의 선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4조 도신(道信)과 5조 홍인(弘忍)을 거쳐 북종선(北宗禪)의 신수에게 전해졌고, 신수는 일행삼매를 소의(所依)의 수행법으로 삼았다.

6조 혜능(惠能)도 일행삼매를 강조하였으며, 〈육조단경〉 종보본(宗寶本) 제10 부촉품에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고자 하면 일상(一相)삼매와 일행삼매에 달(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체종지는 붓다만이 갖춘 것이니, 일체종지를 얻는다는 것은 곧 붓다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불생증애[不生憎愛,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를 내지 말라 말하였다. 증애를 내지 않으려면 시비분별심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일상삼매이다.

혜능은 순일직심[純一直心, 순일하고 곧은 마음]이 부동도량[不動道場, (우주의) 근본을 떠나지 않음]하는 것이 일행삼매라 하였다. 정혜(定慧)를 함께 닦아야 하는데, 일상삼매는 곧 혜(慧)를 닦아 통달하는 것이고, 일행삼매는 곧 정(定)을 닦아 통달하는 것이다. 일상(一相)은 곧 우주의 근원이어서, 일상삼매는 우주의 근원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일행(一行)은 일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어서, 곧 일상삼매가 이어지는 것이 일행삼매이다. 일상삼매가 우주 근본자리의 사진을 찍는 것이라면, 일행삼매는 동영상을 찍는 것이다.

"육조대사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만약 (일체)종지(種智)를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일상(一相)삼매와 일행(一行)삼매에 달(達)할지니라. 만약 모든 곳에 처(處)하더라도 상(相)에 머물지 않고, (만나지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에서 증애[憎愛, 미워하고 좋아함]의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취사선택을 하지 말고, 이익(여부)도 생각지 않고, 성괴[成壞, 이루고 허물어짐] 등의 일도 생각지 않고, 평안하고 한가롭고 고요하며, 거리낌과 욕심 없이 깨끗하고 맑은 경계를 일상삼매라 한다. (또한) 만약 일체처(一切處)에 다니고 머물거나 앉고 눕거나 간에 순일직심[純一直心, 순수한 하나의 곧은 마음]이 도량[道場, 근본자리. 본체]을 여의지 않으면 진실로 정토를 이루니라.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사람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모두 갖추면, 땅에 씨를 뿌려 대지가 씨를 잘 품어서 오래 기르고 익혀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도다. 내가 지금 설법하는 것은, 마치 때에 알맞게 비가 내려 대지를 널리 잘 적시는 것과 같으니, 그대들의 불성도, 비유하면 종자가 비를 만나 두루 젖어 윤택해지고 싹을 틔우듯이, 내가 말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의 뜻을 받드는 자는 결정코 보리(菩提)를 획득하고, 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이는 진실로 붓다의 묘한 과보를 성취한다.' "

〈六祖大師法寶壇經 T2008_.48,0361a26–b07〉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⑲ 이해의 길 39

마음과 언어가 만나면 '소통'

"니 눈빛만 보고 네게 먼저 말 걸어 줄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한때 가요계를 강타했던 4인조 혼성그룹 자자의 '버스 안에서' 라는 노랫말이다. 얼마 전 추억을 소환하는 TV 프로그램인 '슈가맨' 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노래는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채 상대가 내 마음을 알고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는 소심한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다고 가수는 잘라 말한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에서 많이 작동하고 있는 마음과 언어는 선(禪)과 교(敎)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교종이 붓다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 중심의 불교라면, 선종은 이심전심(以心傳心)에서 드러나듯이 마음을 중시한다. 선은 달을 가리키는 수단인 언어에서 시선을 떼고 직접 마음을 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선불교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신라 말이다. 선종은 가지산문이나 실상산문을 비롯한 아홉 개의 산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구산선문(九山禪門)이라 한다. 구산선문이 형성되면서 한국의 불교계는 화엄종이나 법상종과 같은 교학 중심에서 벗어나 실천을 중시하는 선 중심으로 재편되기에 이른다.

처음 선불교가 소개되었을 때, 기존 교학에서는 '악마의 말(魔語)' 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개방적이고 평등을 강조한 선은 대중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차츰 그 영향력을 키워갔다. 당시의 교학불교는 돈과 지식, 권력을 지닌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들만 향유할 수 있는 고급문화였다.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를 모든 이들을 위한 불교로 확대시킨 것이 바로 선불교다. 선은 돈과 지식이 없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신문화를 바라문들이 독점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깨친 진리를 모든 대중들에게 개방한 붓다의 이념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열린 가르침에 대중들은 환호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부처로서 평등하다는 선불교의 정신은 당시에는 혁명에 가까웠다. 이는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면서 평등을 외쳤던 2,600여 년 전 붓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그 정신이 선불교를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들에게 선불교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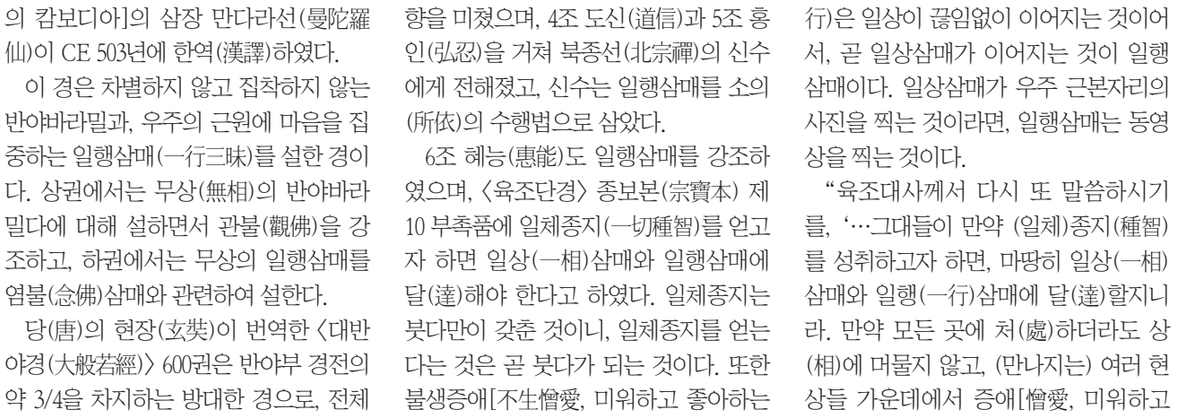
그러나 전국에 구산선문이 형성되고 선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종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에 따르면 이 둘이 서로 '원수처럼' 싸웠다고 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소통시킬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선사(禪師)임에도 불구하고 교종에서 중시하는 〈대장경〉을 3년 동안이나 연구하였다. 그가 찾은 해답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禪是佛心)이며, 교는 부처님의 말씀(敎是佛語)' 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곧 마음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 말씀이니, 선과 교는 하나라는 뜻이다. 마음과 언어가 만나면(會) 서로 통(通)할 수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결론이다. 선교회통(禪敎會通)의 전통이 확립되는 순간이다.

불교를 아무리 다양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 본질은 '깨침과 자비' 에 있다. 그리고 깨침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비를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 깨침과 자비를 둘이 아니라(不二)고 하는 이유다. 깨침을 향한 길이 선(禪)이라면 자비, 즉 중생을 위한 길이 바로 교(敎)다. 마음으로 깨친 진리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럴 때 비로소 깨침과 자비, 선과 교는 하나가 된다.

이를 일상에 적용하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선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교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더라도, "사랑합니다"는 말 한 마디면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눈 녹듯 녹고 만다. 이처럼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마음과 언어가 만나면 소통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작동하는 법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통신수업 3개월과정(57기) 교육자료 배부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녹음강의 통신수업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0년 4월 2일부터 3개월
·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통신교육 기간내에 전화 질의 상담으로 교수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줄이지 않으면 만족은 없다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⑦ 불만(정서적 갈증-중독)



7-1 에고의 또 다른 속성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걸 요구하고 아홉을 받아도 하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열을 다 채우면 만족할까요? 또 다른 불만거리를 찾지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첫 시험에서 50점을 받아 왔습니다. 엄마는 엄청 화내고 공부하라고 다그쳤지요. 다음 시험에 아이는 80점을 맞았습니다. 엄마는 두 개나 틀렸다고 야단칩니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이번엔 90점을 받았지만 또 한 개 틀렸다고 야단칩니다. 아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드디어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엄마에게 뛰어가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마는 "너네 반에서 몇 명이나 100점 맞았니?"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시무룩해져 대답합니다. "5명이요."

칭찬을 기대한 아이의 실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이는 야단 맞지 않기 위해 엄마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엄마가 좋아할까 예민하게 탐색합니다. 늘 야단 맞을까 봐 불안해 하며 성적표를 고치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자라면서 강박적인 불안증과 같은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지요. 욕심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거지요.

7-2 이렇게 에고는 무리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대어 자신과 주변을 불편한 상태로 만들고 맙니다. 분노를 삼켜 숨기고 복수할 기회를 엿봅니다. 자신의 욕망을 남에게 투사하며 자식에게 투사하고 배우자에게 투사합니다. 기대에 못미치면 엄청난 분노를 자신에게, 남에게, 자식에게 뿜어냅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 표현 못하고 억압해둔 분노의 감정까지 합쳐 폭발합니다. 실패 없이 쭉 성취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실패 없는 성공이 있나요? 완벽하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 완벽이 있나요?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 "한두 개 틀려도 괜찮아. 좀 더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이런 격려가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100점과 1등만을 요구하면 또 다른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성숙한 반응은 "와 두 개밖에 안 틀렸네. 잘 했다." "와, 하나밖에 안 틀렸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보다 더 성숙한 반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충분해." "현재 그걸로 충분해." "너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를 얻은 거니까 충분해." 100점이 아니더라도 그 노력과 그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세, 나의 기대와 욕심을 투사하지 않는 반응이지요. 그리고 틀리거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복습하여 분명히 알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틀릴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실수나 실패에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지요.

7-3 이렇게 성숙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족하기가 어렵군요.(웃음) 왜일까요? 수양이 부족해서 절제하기 어렵다구요? 수도원이나 동굴에서 고행을 해보지 않아서 안 된다구요? 그것은 인욕이고 인내를 키우는 훈련이지 근본적 해결은 아닙니다. 무소유가 정답이라구요? 모두가 성직자나 수도자가 될 수는 없으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무소유의 본래 뜻은 욕심을 버리는 것, 욕심을 비우는 것이지 물질의 무소유나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뭔가를 끊임없이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진 게 없고 가난합니다. 1억을 가지면 10억을,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바라고, 100억 부자는 1000억 부자를 선망하고 1000억 부자는 재벌을 희구하고 재벌이 되면 이제 몇 번째 재벌이냐를 따집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명하군요. 그것은 마음의 허기- 불만 때문입니다.

욕망 성찰, 고통 수반해
'탐닉'은 정서적 굶주림
멈추고 마음 보면 해결

따라서 불만 아래에 숨은 욕망을 성찰해보아야 겠군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1~2분).

욕망으로 인해 분노를 느끼고 적대감을 느낀 경험들을 떠올려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와 관계에서, 자식들과 관계에서, 친구나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나의 바람과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너졌을 때 그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안아주세요. 그 때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아프군요. (충분히 숙고한 후 눈을 뜹니다).

7-4 욕망에 대한 성찰과 내면의 상처를 자각하고 보듬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통찰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고 아픔을 재경험해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정서적으로 굶주리면 늘 무언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게임, 술, 담배, 음식, 도박, 섹스, 약물에 탐닉하거나, 일중독, 종교중독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의존 욕구가 자라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삶을 지배하는 것이지요. 현재를 살면서 과거의 족쇄에 묶인 것과 같습니다. 과거(상처)라는 감옥이지요. 인간의 유아적 욕망은 자기만 갖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지배욕이 됩니다. 신(부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침탈하고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욕심이 낳은 재앙이 분노, 증오, 적대감으로 표현됩니다. 수많은 복수도, 부모 형제를 죽이는 패륜 행위도 여기서 비롯되는군요. 이 욕망과 이 증오가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쳐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달아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 됩니다. 최근의 '박사방' 'n번방' 사건도 이 범주에 듭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도 자연의 오염과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고 각종 항생제 등의 약물 남용이 원인이니, 이 또한 인간의 무절제한 욕심과 분노 때문 아닌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인간에만 국한시키는 덕목이 아니군요. 인간은 자연의 일원이라는 각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5 정신분석가 에릭슨(Erickson)이 인생의 발달 과정을 8단계로 나눈 것은 심리치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제(기본적 신뢰, 자율성, 자발성, 근면성 등)가 있는데 이 과제가 성취되지 못하면 그 미해결된 과제는 평생 숙제로 남아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아가 건강한 힘을 갖추려면 충분한 의존(아낌없는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단계를 잘 거쳐야 분리 독립의 단계로 나아갈 힘이 얻어지는데, 기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아이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자긍심 대신 수치감과 열등감에 휩싸인 채 아무 희망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아픔은 너무 극심해서 무의식 깊이 눌러 묻어 버려야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그런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마저 자각 못한 채 나름대로 자신을 위로하는 중독의 상태로 방어하게 되는 것이지요. 게임이나 도박, 알코올에 중독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중독을 이겨내라'는 주문은 공허하여 작심삼일이 되거나 또 하나의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 전단계의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지요. 전단계란 마음의 상처를 보호하려고 중독의 방법을 선택한 배경을 돌아보고 그 상처를 안아주는 것이지요.

7-6 독점욕은 태생적입니다. 모태로부터 분리된 영아가 엄마를 찾고 독점을 원하는 걸 탓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인간됨은 과거의 안락에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자립과 분리 독립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리 자란 경험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날선 고함과 채찍으로 아이를 예속시키고 독점 지배하려 듭니다. 효도라는 미명과 규율이라는 미덕으로 합리화하면 아이의 자율성은 성장하지 못하고 애어른을 만들거나 마마보이로 안주하게 만들지요. 적절한 욕구 좌절과 지연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미 자라면서 겪었던 훈련이기도 합니다. 바로 동생의 출현이고 또래 친구들과의 교유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형제(동지)애를 키우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스스로 터득하며 성장합니다. 한없는 충족 대신 빼앗기는 아픔도 상대방의 만족을 통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공존과 상생을 터득해갑니다. 형제와 싸우며 화합을 터득하고 부모로부터 자립하게 되고 서로의 집착과 기대로 칭칭 얽어매는 족쇄를 느슨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음을 체득하는 것이지요.

7-7 물질적 탐닉에서 벗어나고 무한 지배욕과 과시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만을 다스리는 길은 욕구에 대한 무한 충족도 아니고 자이나교도처럼 엄격한 무소유나 금욕도 아닙니다. 욕망에 대한 자각과 성찰이 불만의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불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만족만 하라는 것은 바른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관용, 일류 지향에 대한 반성, 능력보다는 품성에 대한 가치 부여 등이 불만에 대한 중도적 답일 것입니다. 사회적 의식 수준이 그렇게 성숙해지기 전에는 지역 차별, 학벌 차별, 민족 차별, 인종 차별, 종교 차별, 빈부 차별 등으로 불만의 바이러스는 그 전파력을 높여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의식의 성장만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그것은 부단한 자기 성찰, 즉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에서 가능합니다. 고통을 존중하고 실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 처해도 당황하지 않고 배워나가는 자세로 임한다면 문제는 마침내 해결될 것입니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에너지 파동 성명학
창업·지도자반 모집

■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이름만 듣고 운명을 말해주면 신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말소리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의 에너지가 발생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는 순간 파장을 타고 널리 퍼져 나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같은 소리지만 어떤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소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는 소리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어떤 에너지의 힘 때문입니다. 즉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소리파장으로 부르는 이름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작명. 개명. 법명. 호. 회사이름. 상호. 각종번호. 집 주소. 핸드폰번호. 차량번호에 따라 소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회사명을 개명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해합니다.
힘들 때 이름을 바꿔보세요.

서울
서울동국대 미래융합대학
1. 에너지 성명학 : 4월 3일(금) 개강
2. 융합명상가족세우기 : 4월 3일(금) 개강

천안
접수처 :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37호 학마을 명상선원
성명학 수시모집 : 010-8634-7851
융합명상과 내면의 고민 치유(가족세우기)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부산
접수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26-16번지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 남천역 2,4번출구
성명학 수시모집 : 010-5515-0918(간사)
융합명상과 내면의 고민 치유(가족세우기)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에너지 파동 성명학회장 도윤(정행) 스님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287호 | 15 | 전면광고

보시는 큰 부의 문이 되며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문수사리정률경》에서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 조 불 교 재 활 용 센 타
010-9177-7842

금동아미타 삼존불 -양도-
(네이버검색)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황토장뚜껑 판매점
• 1개 : 2만 5천원 3개이상 주문택배
• 판매점은 100개이상 주문생산
• 지장성모님 법당등록 설계
법당불 100만원, 가족불 50만원
무속인 사절, 불교보살만 접수
구비서류 :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사본
준성직자 보살 처사님 승려고시함
회불대학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그곳에 가서 빌면 원하는대로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위 내용은 국도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P.785에 있는 국가 기록 문서입니다. 이 사실을 2019년에 발견하여 우선 컨테이너기도실로 마련하였아오니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 성취 소원의 꿈을 이루십시오.
관련책자 (기도치료원리 그 바깥일들) 280쪽이 필요하시면 책값과 운송료포함, 20,000원입니다.
입금계좌: 우체국 611038-02-004763
농협 352-0943-7979-03 정보석
안내: 010-3557-2773, 010-2093-3385
여의 기도 대성지 도량 건립 발원자 드림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남(男)·여(女)관계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영통도사 명진 -
010-4912-3544

50년
하루에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상담문의 010-4014-8822

• • •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010-2168-2800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 • •
010-5576-2271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화제 "빨간 속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
"돈이 좋아하고, 따르는 속옷이 있습니다"
붉은악마(치우천왕)은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4강에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치우천왕 유래에 따르면 그 옛날 '전염병'이 도질때 우리조상들은 '장승'의 모양으로 마을어귀에 세워 전염병을 막게 하였다.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일평생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손해인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온 국민이 걱정이다. 좋은 운이 따르는 '치우천왕 빨간 속옷'을 비법으로 꼭 입으시어 나와 내 가족이 나쁜 운을 만나지 않게 되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돈도 들어오게 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사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치우천왕 빨간속옷 2장 ~~10만원~~ ⇨ 5만원
Daum 카페에서 치우천왕 정담 을 검색하세요.
국민은행 324702-04-162923 예금주 : 배정민
상담전화 010-4500-8234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 · 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대방광불화엄경 속의 내재된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
1. 화엄경은 여래가 설(說)한 경이 아니다. 여래에 대(對)한 경이다.
2. 화염경에서의 여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3. 법신부처님은 잠시도 쉼 없이 장엄정토를 위해 노력하신다.
4. '신위도원공덕모'라는 화엄경의 표현에서, 믿음(信)은 법신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5. 믿음(信)을 알고, 발보리심한 보살은 찰라지간에 성불한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다.
6. 대연화라는 대약수는 보리심인데, 일체 질병과 자연재해를 이기는 약이 되고, 수명이 무수겁으로 늘어난다.
7. 앞으로 한국의 화엄사상은 전세계 정신문명의 새로운 빛이 된다.
8. 보현행원은 발보리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신부처님과 합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9. 화엄경의 진실을 밝힌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10-7131-7084
화엄경 진실의 유통선양회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87호 | 16 | 전면광고

혀를 놀려 거짓말하지 말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외
◎ 매가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6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6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위치 : 부산 신평 토지 5천여평
- 주거지역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포함

010-9906-363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용동
- 대지 100평
- 법당 20평(2층)
- 1층 28평, 방3개, 화장실
- 가액 : 2억 3천만원

010-8611- 756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권리금 : 6천만원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절앞에는 소나무숲 공원, 절옆에는 바닷가(해수욕장)가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원만, 바닷가 앞까지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시세는 평당1천2백만원
- 등기평수 33평, 실평수50평정도
- 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 : 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010-2104-171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 158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약 1,200평
- 법당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공양간, 요사채, 창고,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9천 5백만원
- 부득이한사정

010-4628-5699

사찰및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칠원읍
- 법당 30평(주방, 해우소)
- 요사채 28평(방3, 주방, 해우소)
- 대지 115평, 임야 10평
- 가액 : 1억 6천

010-3906-3711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포교당 안내

- 위치 : 제주시 서광로 29길 11, 3층
- 60평, 큰방2, 법당, 창고, 공양간, 화장실2
- 임대료 : 1년 5백만원

010-4010-4070

별장같은 토굴 임대

- 위치 : 제주시(판넬주택)
- 임야 약1천2백평중 대지132평
- 법당(26평), 요사채(36평), 야외법당(약사여래불), 시설일체완료 (바랑만 메고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 / 월세 50만원

010-4846-3968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부산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지하철 1호선 범일역 입구, 자유도매시장, 평화도매시장
- 귀금속골목 입구(상권최고)
- 법당완비, 에어컨 주방시설 완비, 상담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010-9660-6677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모든 것을 색만 보고 급급하게 돌아가지 말라

일체가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

질문 대행 스님 법문을 들어 보면 일체가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항상 여러분들한테 "둘로 보지 마시라. 둘로 생각하지 마시라. 둘로 행동하지 마시라. 생시에 그렇게 아주 뿌리가 내려서 완벽하게 자기가 잡혔다면 꿈에도 하다못해 벌레를 봐도 둘로 보지 않는다. 어떠한 무서운 귀신을 본다, 어떠한 뱀을 본다, 어떠한 짐승 큰 거를 본다 하더라도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무서운 것도 앞에 닥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가 생시에 모른다면 죽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공생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 많이 하죠, 공생. 내 몸뚱이 하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생입니다. 그 이치는 다 아시죠?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도, 오장육부에 다 생명들이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 몸 하나를 봐도 공생이요, 외부의 모두를 봐도 공생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 공, 공을 갖다가 수만, 수십만 개를 한데 합쳐도 공은 공이거든요.

이러니까 또 거기에 달라붙는 게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다." 라고 한 것은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떤 마음을 쓸 때에 마음 썼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자유스럽게 쓰라고 내놓았는데도 여러분들은 모두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깐 자기 차원에 따라서 마음을 쓰게 되겠죠. 작으면 작은 대로 쓸 거고 크면 큰 대로 쓸 거고, 더 크면 더 큰 대로 쓸 거고, 마음이 바다라면 바다같이 크게 쓸 거고. 그래서 이 마음이 크고 작은 대로 그냥 쓰고 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게 진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깐 모두 작은 거나 큰 거나, 나쁜 거나 좋은 거나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음 속에서 모든 게, 좋게 나오든지 언짢게 나오든지 그 한마음 속에 있다.

근데 그 한마음 속에 있는 거는 알지만 실천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알고 한다고 하더라도 삼 일이 못 가서 그것은 다 폐지가 돼 버리고 말죠. 그런데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그냥 사흘도, 이게 날짜를 두지 않고 끝없는 날을 그냥 여여하게 그냥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대로 '이것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했구나. 이게 못했구나.' 이런 게 없이 그대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돼 있어요, 아주. 그런 마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천차만별의 마음을 쓰는 그 뜻을 그대로 쓰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계들이나 어떠한 무서운 악령들이라든가 무서운 악의 어떠한 문제도 달려들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왜냐. 그걸 둘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생명도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같이 존중하고, 내 생명 아닌 생명같이 생각하라. 내 마음 아닌 진짜 마음, 이게 즉 한마음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그 산다는 생명이라는 건 하루 만에 죽는 거나 며칠 만에 죽는 거나 여든 만에 죽는 거나 백 살 만에 죽는 거나 생명이라는 자체는 똑같아요. 모습은 죄 다르지만 그 마음 씀씀이야 어디 둘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체입니다.

요만한 모습도 있다는 거, 움죽거리고 산다는 거 이거죠. 공체. 우리가 전부 공체죠. 이 사람이라고, 짐승도 이렇게 소나 무엇도 딱 배 갈라서 이렇게 다 해 놓으면 참 그거 볼 만할 겁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육신을 잘라서 갈라 놓으면 그 육신이 죽는 바람에 그 육신 속에 있던 생명들도 다 같이 소하게 되죠. 죽게 되죠. 그러니까 공체며 공용이다. 공체이기 때문에 공용을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다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야 진짜 보살행으로 넘어간단 얘깁니다. 남이 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이러기 이전에 말입니다. 스스로서 행동하는 거 보면 벌써 알아요. 그 행동은 자기가 마음 쓰는 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깐요. 그게 공용이다. 공체이기 때문에 공용이다. 공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으로 돌아간다. 찰나찰나 환경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찰나찰나 바뀌어서 돌아가는 일들을 그냥 여여하게, 그냥 바뀌는 대로 그냥 바꿔지면서 살아나가고 있다. 본래 우리가 여여한 생활을 산같이 물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들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그걸 인식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게 어렵게 생각되고 그냥 잠재해 버리죠.

공식 하면 벌써 원식이데 그걸 먹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몸이 있는데, 이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이 모습 안으로 싹 들어갔을 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모습 안으로 이 모습이 천차만별로, 만 개가 들어갔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있는 자체가 바로 공식이기 때문이죠. 공한 자체기 때문에 이 공한 자체에 이 공한 자체가 모두 들어가면 그냥 공식이 돼 버리죠.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 보살도 중생하고 둘이 아니다. 벌레하고도 둘이 아니다. 이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그 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 도깨비장난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그냥 체가 생겨 가지고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면서 그냥 움죽거리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걸 정신 차려서 듣지 않으신다면 요다음 생에 자기가 훨훨 털고 나설 수가 없어요. 이건 '듣고 보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 가운데에 바로 듣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모습 아닌 모습, 생명 없는 생명, 마음 아닌 마음, 함이 없는 용, 또 모든 것을 함이 없이 할 수 있고, 먹을 수 없이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바닷물을 다 삼킨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삼켰으면 바닷물을 토해 낼 줄을 알아야 하는 그 도리가 원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말로 "공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을 다 집어먹었을 때에 그 물속에 뭐든지 별의별 게 다 들어 있을 테죠. 죽는 것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아픈 것도 들어 있고 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그 마음속에, 별의별 가정 속의 마음들이, 그 애타는 마음들, 이쪽에는 이런 거 저쪽에는 저런 거 모두가 이렇게 들어 있는 그 자체가 몽땅 그 바닷물 한 속에 들어 있어요. 바닷물 한 속에 들어 있는 거를 다 삼킬 수 있어야만 그게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진짜 공식이라고 하려면 그것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물을 정화시켜서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죠.

이 문제가 참,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보고 이렇게 그냥 헤어지고 이러지만 그걸 헤어지든지 듣든지 잠을 자든지 깨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가면서 시시때때로 악한 사람도 만나고 선한 사람도 만나고 악한 일도 생기고 선한 일도 생기는 데서 다 이 둘 아닌 도리를 배우시란 얘기죠. 이 악한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으로써 둘이 아니게끔 관해 놓으면 그것이 스스로서 둘이 아니게 처리가 된단 얘기죠. 그것이 이렇게 공부하는 길이거든요.

또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악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내 탓으로 돌리고 그걸 관해 놓아라. 그것은 상대방도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성취된다거나 그것이 잘 무마가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경험이자, 바로 자기가 길을 가는 데에 걸림 없이 여여하게 걸어가는 길이죠. 이게 모두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그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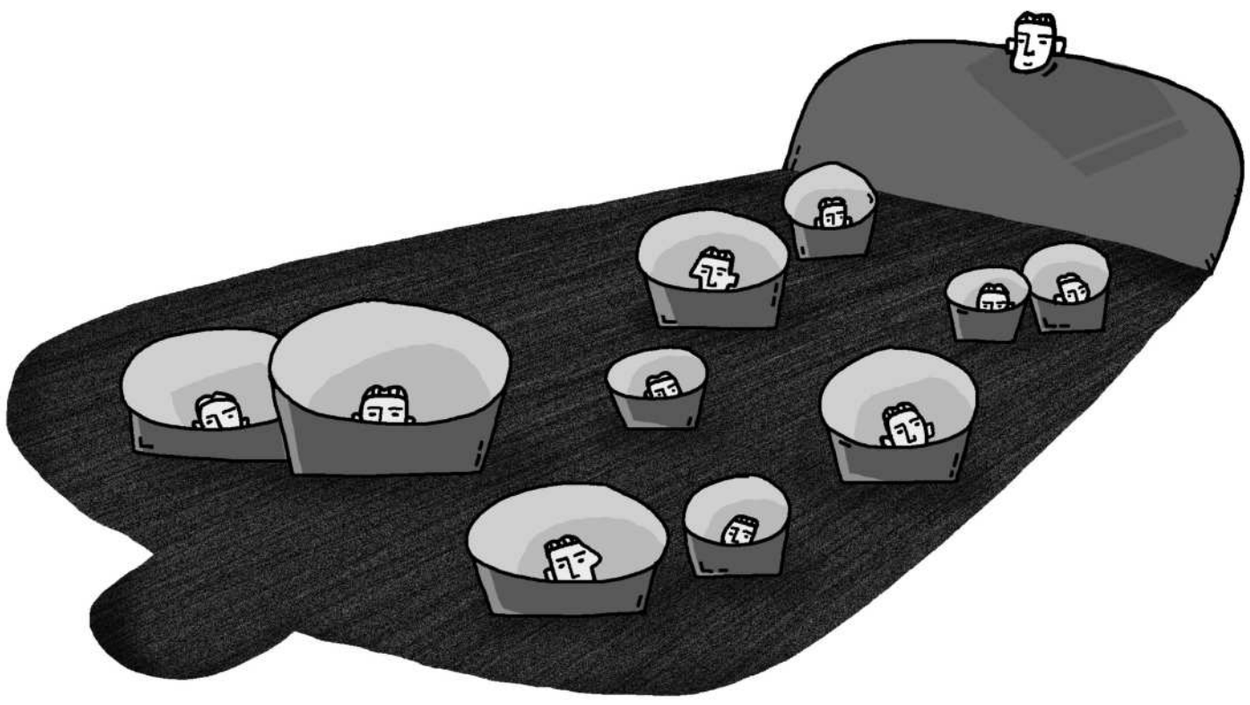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에 맡기는 것으로도 화두참선을…

질문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간화선으로 화두 참선을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인공

☞ 18면으로 계속



아무리 속이 상해도 주인공에 넣어 한번 돌려놔라

☞ 17면에서 계속

에 맡겨 놓는 것으로도 화두 참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런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모든 것을 색만 보고 급급하게 돌아가지 말라. 주인공에 일임하면 그렇게 화목하게 되고, 남을 죽이지 않게 되고, 욕심이 안 나고 사상(四相)이 안 생기고, 모든 욕심이, 삼독이 빠진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의 그 무전자의 능력으로 하여금, 무전자는 부동하지만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여금 유전자는 수가 없이 생기는 거죠. 수가 없이. 그래서 갖가지로 생기죠. 금방 아팠다가 금방 이게 가난하고 돈도 없고 뭐, 고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사의 일도 안되고 뭐, 술집을 하는데 술도 안 팔리고 밥집을 하는데 밥도 안 팔리고, 전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주인공에다가만 맡기면 이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거기에는 수가 없이 그것이 다양하게, 아무리 꺼내도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죠.

그러면 그게 뭐냐? 유전자로 해서 분신이 화한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유전자로 하여금 이 전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으로 그냥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체가 없는 겁니다. 수천수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손이 없는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되고, 그 손이 된다면 이거는 아무리 손이 많이 있어서 많이 쓴다 하더라도 쓴 사이 없이 쓴 것이고, 그 손은 되남는 겁니다.

그걸 떡으로 비유한다면, 부처님께선 공양한 그릇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떡 하나라면 그 떡을 가지고 이 세상만사에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씀씀이가 되는 거를 그 떡 하나로 다 해결을 하고 떡 하나가 되남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대로 고정, 즉 말하자면 부동하게 그냥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니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돼 있어야 한 가지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할 텐데, 천차만별로 돼 있으니 이것이 다양하게 여여하게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요런 것이 요렇다, 조런 것이 조렇다 하고 얘길 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이렇게, 화엄경이니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아함경이니, 이 모두를 해놓은 게 바로 여러분의 근기에 따라서, 어느 거든지 하나만 그것을 깨치면 바로 여러 가지가 다 주산이 놔진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칠백 공안이 다 도의 문이니라." 한 것이, "그것이 바로 화두고 그러니라." 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 앞에 화두를 또 준다면…. 이 공한, 이 사대가 공한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나오고부터 그대로 화두며 그것이 진리예요. 그 사대가 공한 이것이 진리거늘 여기에다가 또 화두를 남한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건 근래에 있는 거예요. 전자의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냥 네가 생긴 것이 태초요, 네가 생긴 것이 화두니라.

그런데 딴 사람이 내 밥을 대신 먹어 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항상 내가 잘되는 걸 타의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전자의 석존으로부터 가르쳐 내려오신 조사 스님네들에 그 누가 되는 겁니다, 첫째. 둘째, 내가 이롭지 못하고 세세생생에 끄달릴 테니 얼마나 누가 되는 거냐. 얼마나 불충이냐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서 내가 이렇게 생긴, 이 나를 낳아 준 육신 부모들한테도 누가 되는 거죠, 전부. 나 하나만 깨치면 전체가 다 공해서 일심으로, 공용으로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집들도 다 유유히 편리하게 돌아가는데 아, 나 하나가 그렇게 모르니 전부 끄달려서 인과응보와 유전성이 그냥 얽히고설켜서 뭐, 녹아지기는, 풀어지기는커녕 외려 덧붙여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 우리가 녹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덧붙여 놓는 셈이다 이겁니다, 몰락 놓지 않는다면.

> **몰락 그냥 놔 버리면 스르르르 봄이 와서**
> **얼음장 같은 그 딴딴한 마음이**
> **다 녹아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보셨죠?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녹이려고 끓는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어 보십시오. 잠깐 그 거죽만 이렇게 녹는 듯했다가 다시 끓는 물 한 바가지 부은 것이 되얼어서 같이 두더기가 돼 버립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몰락 그냥 놔 버리면, 봄이 오면 스스로서 끓는 물 한 바가지 떠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서, 그 딴딴한 얼음은 스스로서 녹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이 상해도 주인공에 넣어 한번 돌려놔라. 그러면은 금방 칼이라도 있으면 찔러 죽이리만큼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르르르 봄이 와서 얼음장 같은 그 딴딴한 마음이 다 녹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대오온이 공해서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즉 말하자면 삼심이 공해서 일심으로써 이렇게 돌아가니 모든 걸, 너한테서 나오는 거 너한테다 놔라 이겁니다. 그것이 화두이자 바로 길이니까. 진리니까.

키우는 애완견이 축생고에서 벗어나길…

질문 요즘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동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 곁에 있으니 마음공부를 하기가 더 쉽겠죠? 저도 애완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도 빨리 진화돼서 축생고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여러분 가까이에 개나 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말, 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보고 왔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짐승들도 몇 안 되지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인간처럼, 인간이 돼야만이 벗어날 생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발로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항상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겁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울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그렇게 바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나은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해서 항상 생명과 몸을 다 바쳐서 때로는 그 식구가 다 죽을 거를 면케 해 주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죠.

옛날에도 내가 말했죠. 어느 대갓집에서 농사를 지으면 항상 이 쌀을 갖다 놓고선 그 싸래기 빻은 거는 항상 쥐들 먹으라고 풀어 놔 줬다고요. 그 주인이 지혜가 풍부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먹게 놔두니까 쌀을 건드리지를 않았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식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쥐들이 보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많이 배웠어요, 쥐들이.

그래서 쥐 모습을 벗어 버리려고 무지하게 앨 쓰고 가던 중 어느 날, 그 옛날에는 기와집을 하면은 그 진흙을 갖다가 그냥 포겸포겸 놓아 가지고는 기와를 올렸더랍니다. 근데 그게 오래돼서 몽땅 가라앉으니깐, 자는데 그 식구가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쥐 새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막 삑삑거리면서 춤을 췄답니다. 막 춤을 추니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여러 마리가 그러니깐 '이거 잠 못 자겠네.' 하곤 나왔더랍니다. "얘, 이거 구경해라. 쥐들이 춤춘다." 하고 그러니깐 식구가 다 나왔다 이겁니다. 다 나와서 그 구경을 하는 도중에 지붕은 폴딱 그냥 가라앉아 버렸죠. 그렇게 지붕이 가라앉으니깐 그때서야 춤을 멈추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 헤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새끼를 놔 놓고는 금방 죽더랍니다. 그래서 '왜 죽었나. 새끼를 놔 놓고 죽었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우유를 먹이면서 인제 새끼들을 기르는데 개 어미가 죽고 난 뒤 바로 애가 들어섰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애를 기르는 데도 그렇게 영리하고 착하고 의리와 도의를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밝고 이름이 빛이 나더랍니다. 그 개는 순간의 모습이 개였지만 순간에 바뀌어서 사람으로 그렇게 탄생을 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앨 써도 저놈의 강아지 왜 짖느냐고 그냥 듣기 싫다고 몽둥이를 가지곤 그냥 때리고 돌맹이질을 하고 그러거든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아이, 도둑만 알지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와서 사람을 헤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그 개는 수 년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인간의 도리를 다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냥 자꾸 짖고 하는 건데 '저놈의 개가 짖어서 잠도 못 자게 한다' 고 돌맹이로 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뛰어 달아나갔다 또 와서 그러고 또 와서 그러고 그러더니 그냥 그 식구들을 위해서 개가 그냥 죽었더랍니다. 피를 토하고 죽었더랍니다.

근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시고 "어, 이 집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개는 모습을 벗었구나." 이러시면서 "허허, 그것 참 기특하구나." 이러면서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지하게 인연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배우고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러곤 그냥 말을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선 그 개를 얼른 거둬다가 묻어 줬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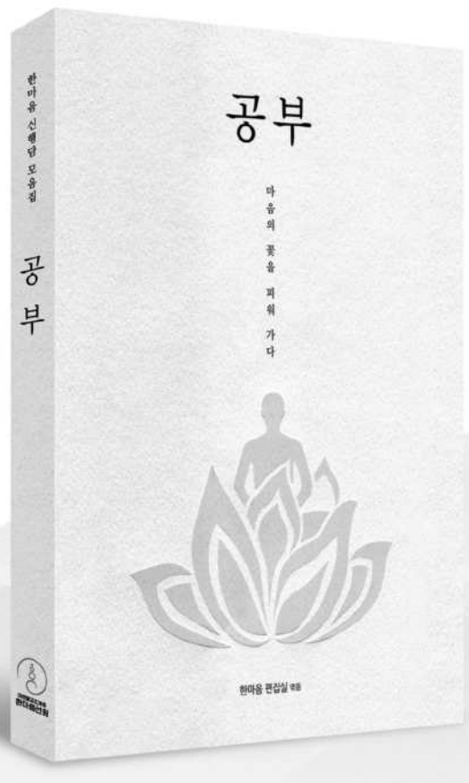
그렇듯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발로 걷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과 자기 모습을 다 버리고 나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간이 되면은, 중생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너는 곤충에 불과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진화가 돼서 사람은 됐으나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요? 그렇게 지은 인연밖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입고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구조가 완벽해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깐 이 참,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그거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조복하라. 네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둘이 아니게 조복하라." 그 모습 속에 있는 곤충들이 이 사람과 둘이 아니어서 하나로 공해야 이 곤충 몸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곤충의 집합소예요. 그 모습은 인간이고 부처라고 하지만, 마음도 그렇다 하지만 마음도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곤충도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그 곤충도 인간으로 화해서 하나가 돼야지, 그걸 조복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없고 살아도 산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어떠한 모습도 마다 안 하고 모습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뭐든지 아니 하시는 게 없이 하시되 함이 없이 하십니다.

이 모두를 따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남았습니까? 이 모습을 버리기 전에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있는 이 곤충도 다 하나로 부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병세, 어떠한, 즉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인과성, 유전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둘이 아니라 모두가 공심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곤충으로 남아 있으며 그게 어떡해서 죄로 남아 있으며 인과성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유전성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이게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기도하는 사람들



손가락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저께는
온통 깜깜한 밤하늘
오늘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

손가락이 세 개든 네 개든
손가락 쫙 펴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 분들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을까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싸이말루이 따쉬의 특징적인 암각화다. 큰 반달 모자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손에 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샤먼일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손가락이 3개나 4개다. 보통사람과 다른,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

샤먼의 옆에 있는,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린 사람은 샤먼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듯하다. 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반원형의 그림은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북을 들고 기도하는 샤먼들의 머리 위에 있는 반달 모양은, 칠흑 같이 어두운 밤하늘, 또는 기도 성취를 위해, 한 점의 빈틈도 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깊은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고대인들의 삶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일은 매우 절실한 일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형식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요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상한 감기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다. 어서 빨리 원인을 찾아내고 처방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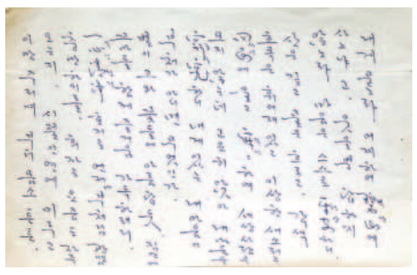
먼 옛날 옛적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정성으로 기도했을 그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분들이 무척 가깝고 고맙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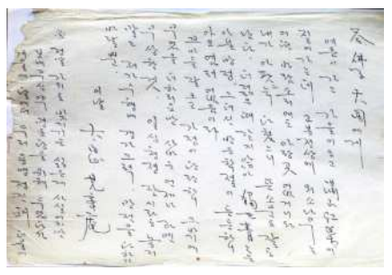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⑦ 일타 스님 3

산중 선지식의 마음





〈서신 1〉

내게 묻노라 어찌하여 碧山(벽산)에 사느냐고,
웃을 뿐 답하지 않노라
마음은 스스로 平安(평안)하니 산은 깊고 물은 흐르고
각색 초목은 휘어져 있고 이상한 새소리는 사방에 울고
적적하여 세상 사람은 오지 않는데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궁구하니
내게 있는 내 마음이 부처가 아니면 무엇인가
별이 고와 꽃들이 아름답듯 집안에 꼬마들 함께 즐거움 가득하려니
일심청정 호지로 언제나 부처님 광명이 충만하기를
희자는 요즘도 자주 오는지
시절 인연에 미루고 이만 줄이며 부디 몸소 튼튼.

태백산 도솔암에서 수행 중이실 때 쓰신 글을 보내셨다. 희자 스님은 진주 응석사 총무스님으로 자주 함께 뵈었던 스님이다.

문장 한 줄 한 줄에서 산중 선지식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편지다. 경전이나 일반 책의 문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문장이다. 많은 서신이 있었지만 이 서신은 유독 기억에 남는다. 한 줄 한 줄 서신을 읽으며 스님의 깊은 마음에 다가가려 애썼던 기억이 난다.

〈서신 2〉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滿山紅葉(만산홍엽)이 짙어가는데 고봉정상에 외 소나무는 어떤 바람소리에도 아랑곳 없거니와 내가 아팠다느니 다쳤다느니 뜬소문이 잘도 난다. 더 젊을 때 같지는 않아도 독야청청은 아닐망정 그 대신 반근착절이 든든하니 아모 염려 없음이라.

꼬마들 잘 크고 가정이 단란하니 그 밖에 무엇을 더 하리요만 사바는 언제나 과연 무상한 것. 일심청정 잠시라도 놓지 말고 재가 수행에 갱가노력 만전을 다하기 바랄 뿐. 태백산 도솔암에서

※가외로 빚지기는 정말 싫은 게 사실이지만 보내주신 약 명초당을 위해 두었다가 겨울에 달여서 우리 용맹정진 때 더불어 공양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의논하여 약을 한 재 지어 보내드린 후 답장으로 온 서신이다.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우셨던 스님은 부산 대각사에 법문하러 오실 때면 나를 불러 법문을 듣게 했다. 그때는 내가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였다. 그냥 뒷전에 앉아 있는 게 다였다. 어떻게들 알았는지 절 마당은 대중으로 가득차서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다는 게 신기했다. 그렇게 일타 스님과 인연이 시작됐다.

얼마 후 대각사 불교청년회에 가입했고 1967년 11월 해인사 수련회에 참가했을 때 다시 스님을 뵈었다. 그때부터 스님을 자주 뵙게 되었고, 인연은 깊어졌다.

1968년 봄에 범어사 보살계 법문하러 오셨을 때에도 보살계가 뭔지도 모르는 내게 계(戒)를 주셨고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알려 주셨다. 내가 스님을 깊게 따르다보니 문중 스님들도 자연스레 큰스님 유발상좌로 대해주셨다. 스님이 안 계신 지금도 행사 때마다 문중 스님들을 뵈면 친정에 온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스님이 더욱 그립다.



일타 스님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